

# 탈탈한 언니들

4050

WLB 연구소

Work Life Balance 일생활균형

## WLB연구소는

조직정의(organization justice) 관점에서  
다양한 일하기 방식과 생활방식에 맞는  
대안 조직문화를 제안하고 실험하는  
액션리서치 전문기관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일생활균형 실천의 일상화·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합적으로 자신의 일하기 방식을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 일생활균형 정책 발굴 및 연구 수행
  -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수행
  - 조직문화개선 워크숍 :  
<시간디톡스>, <이미지마이닝>, <대나무숲워크숍> 운영
  - 일머리 아카데미 및 조직문화 교육 다수 진행

part.1 | 탈탈한 언니들

## 나의 중년기는 잘 아물어 갔으면

아빠 : 딸이 그랜저 한 대 사주겠지?

딸 : 40살에는 가능할 거 같아.

그리고 20년 후,

아빠 : 딸이 그랜저 한 대 사줄지 알았도만,

딸 : 지금 사면 문짝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어.

아빠 : 허허허허허허

20살엔 40대가 되면 부모님께 그랜저 한 대는 턱 하고 사낼 삶의 여유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생기는 줄 알았었나 봅니다. 저리도 순진하게 공수표를 담당하게 날렸던 걸 보면 말이죠. 20대엔 삶이 마구잡이로 선택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40대에 남부럽지 않은 전문성과 경제적 안정은 따라올 거라고 자신했던 거 같습니다. 나도 누구들처럼 졸업할 때 되면 전공자격증이며 토익 점수며 준비된 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설날 떡국 먹듯 나이 들어가며 때 되면 취업하고, 때 되면 멋진 남자와 사랑하고 결혼하고, 날 닮은 딸을 낳아 맛집을 탐험하는 삶을 살 것 같았죠. 다 드라마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하하. 내가 주인공인 드라마에서는 무엇 하나 생각대로 뜻대로 딱딱 들어맞는 전개는 없더라구요. 나에게는 드라마에 나오는 부자아빠도 없고, 재투

성이인 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실장님, 본부장님인 남자친구도 없고, 고리대금융계의 큰손인 할머니가 있는 숨겨진 출생의 비밀 같은 게 없으니 말이죠! 자립의 과정은 녹록치 않았죠.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나는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고, 동기들처럼 전공자격증 하나 없이 졸업을 하게 됐죠.

환경공학을 전공했지만 취업은 광주여성민우회로 했을 때 처음 썼던 자기소개서가 생각이 나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졸업반이던 시절, 월급쟁이 직장인보다 나의 잠재성이 더 크게 활용될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식이었죠. 67만원 월급에 17만원 월세를 내고 지내던 시절이라 저축 같은 건 할 수 없었지만 그 땐 정의로웠고 무모한 용기도 낼 수 있어서 거침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회화가 덜 돼서 거칠고 야생적인 거였어요. 그래도 그 때는 뭐만 하면 다들 “잘한다잘한다”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게 가능했던 건 언니들의 룰이 지배하는 곳이어서 가능했던 거 같아요. “모의지만 여자대통령 선거를 해봐요!”, “마을을 만들려면 그룹으로 활동가가 포진돼있어야 할 거 같아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족족 반영되기 일쑤라 참말로 ‘내가 쓸모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 쓸모가 있고 싶어져서 서울로 여성학 공부를 하러 유학을 떠나왔죠. 20대 때는 온통 여성임을 자각하느라 몸이 아프고, 치유의 언어를 마구마구 집어삼키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 같아요. 여성주의자를 자처하며 주류문화에서 거슬리고 불편한 사람으로 사는게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늘 시소를 탔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으니 남보란 듯이 더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당연히 서툰고 모자란 결과를 건강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우리 사회가 “실패”, 특히 여성들이 실패하는 것에 워낙 가혹한 평가를 하니깐 쉽게 위축됐던 거 같아요. 20대를 돌아보면 자신감과 자책감 사이에서 널뛰기를 했던 거 같네요.

여성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여성이어서 “공대이쁘니”가 되고, “아가씨”라는 호칭을 호의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상들에, 저항의 언어들에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몸에 새길 때 쯤 30대가 되었습니다. 조금씩 세상이 만만해지는 거 같았어요.

주변에 동료들은 두꺼워졌고, 서울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재정은 궁색했지만 시간의 여백을 사이드 프로젝트로 채워가며 제법 주도적으로 살았습니다. 동년배 여성주의 책읽기 모임도 해보면서 ‘차세대 여성주의 담론의 주역이 될 그룹이다’라는 자부심도 만들어보고, 죽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미술전시 커뮤니티도 프로젝트 실험도 해봤습니다.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다가 30대 중반이 되면서 여성주의 실천을 사적 영역의 여성들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남성도 함께 공적 영역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하루의 30%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이루어야 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석사논문을 쓰면서 깊어진 문제의식으로 활동의 장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생각처럼 몸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죠. 석사과정을 마치고 한 여성단체에서 1인 상근자 체제로 활동을 4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런 신호를 주지 않았음에도 어려운 단체 현황을 두고 도망가는 거 같은 죄책감 같은 것으로 입을 떼기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수세적인 태도였네요. 오히려 여성주의를 표방한 단체로서 한 인생의 도전에 응원하고 격려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좀 더 적극적이었어도 됐던 건데 말이죠. 조금 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도 되는데, 살아오는 내내 “나서지마라”, “착하게 살아라”라는 주술에 빠져버린 건 아닐까요? 일상을 지배하는 관습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발견할 때마다 태도를 수정하려고 하지만 관습에 힘이 워낙 세니까 나 자신 하나 변화하기 참 어려운거 같아요. 그럼에도 용기내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하나 없다는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고민에 걸 맞는 '기업문화'를 활동의 현장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옮기게 되었죠. 옮긴 곳에서는 공적으로는 돌봄의 사회적 배분 시스템을 상상하면서 제도 정비를 제안하고, 회사조직에서는 정비된 제도들이 실행될 수 있는 조직문화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적으로는 남성들의 가족생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캠프도 만들고 연구활동도 했죠. 새로운 현장이 주는 어려움은 바뀐 장에 걸맞는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성”이라는 암묵적인 공통점에 호소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이라 비교적 상호이해가 빨랐다면, 영리현장에서

직무 담당자를 만나서 의사소통하는 것은 선택하는 어휘, 신체적 표현까지 그 공간과 상황에 맞게 새로 익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를 살피가며 흉내내기부터 해야 했죠. 얼마나 어색하고 서툴렀겠어요? 서툰은 무능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몇 배로 힘들고 위태로웠죠. “여자들은 군대를 안다녀와서 조직생활을 모른다”, “여자들은 사회 생활에 미숙하다”는 평가를 듣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을 의심하고 주저될 땐 자존감이 낮아지고 때론 번아웃의 늪에 빠져들기도 했던 나날을 5년 즈음 보내다 보니 겁내지 않는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상황은 늘 시나리오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적당한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더라구요.

이렇게 저렇게 시간은 흘러 40대가 되었고, 20살에 상상했던 40대는 너무 단순하고 쉬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30대에 가졌던 삶에 대한 만만함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20대 때처럼 위태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제야 나를 온전히 마주하고 있어서이지 않을까요? ‘불혹’은 그런 게 아닐까요? 40대가 되면서 타자에게 한없이 다정하지만 나에게 무례한 사람들을 참지 않고 과감하게 절연하는 태도를 갖기로 했죠. 타인을 대하는 나의 마음을 전환하기로 한거예요. 대학원을 다녔던 30대 서울 생활은 한없이 외로웠고, 그 외로움의 구멍을 메우고 싶어서 타자의 입장을 헤아리느라 수렁에 빠지기 일쑤였던 시절이었던 거 같아요. 물론 ‘지금부터 시작!’ 뭐 이렇게 맘먹었다고 호떡 뒤집듯 태도가 바뀌진 않겠지요. 나이 40에 집 한 채 없고, 흔한 차도 없지만 나름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옆지기들을 보면서 삶을 살아내기도 하고 살아지기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한발씩! 그 한발이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걸 이제는 알죠. 그리고 그 한발자국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저에게 전환은 익숙함을 탈피해서 낯설고 마주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낯설은 불편하고 긴장되지만 설레이는 과정이죠. 활동의 주제가 바뀌기도 하고, 삶의 토대가 바뀌기도 하고, 활동의 장이 바뀌기도 하고, 나의 잠재성을 계속 발굴하고 실험하면서 그때 그때 중요한 것 쪽으로 에너지가 기울어지기는 하지만 계속 앞으로 미끄러져 나아가죠. 낯설게 내딛은 한발이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매일 용기내고 있어요! 오늘은 어제가 아니니까요. 알고 보면 우리는 그래서 용감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탈탈한 언니들>은 2019년 출발하며 우리는 “여성의 실패가 ‘위기’로 연결되는 사회가 아니라 사실은 그저 그런 삶 속의 한 과정이며, 그 일로 인해서 삶이 그렇게 엉망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모두가 가질 때까지 우리의 실패담을 계속 이야기하고자”하다고 선언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탈탈한 언니들 시즌2 : 4050>을 준비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2030여성을 출산하는 몸에 가두고 4050여성은 희생의 아이콘으로 신화화 하면서 가족에게 헌신하도록 해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시도들을 자책하게 만들고 죄의식에 가뒤퍼리려는 세상의 불손함에 반기를 들고 살아가는 언니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해내야 하는 몫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자신을 찾아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그녀들의 작은 몸부림을 여러분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은 데뷔의 무대이지만 현장에 참가하신 분들이나, 글로 만나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삶은 이어지고 모두가 과정 중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서로 응원하고 환대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 탈탈한 언니들을 응원하며,  
**일생활균형연구소**

\*<탈탈한 언니들>은 2020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기금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탈탈한 언니들>은 2020년 6월 3일~6월 24일 매회 2시간 단위 소규모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본 자료집은 각 회차의 주인공들이 강의한 내용을 ‘글’로 재정리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노세노세 접어서 노세

노니는령 조혜영

2020.6.3. <노세노세 접어서 노세> 강의 진행

안녕하세요. 플레이시스 조혜영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WLB연구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잘 놀자’입니다. 잘 놀아야 일도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나는 놀았기 때문에 50대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놀면서 일하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럼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볼까요?

## 조혜영, 10대, 80년대, 성격형성시기

### -천지분간 못하던 시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끼가 다분해 보이죠? 노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뽀로로같은 어린이였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사진은 곱게 차려 입고 멋을 낸 멋쟁이지만 사실은 겨울이면 늘 손이 터서 갈라지고, 온 몸에 든 멍이 사라지지 않는 개구장이였습니다. 사방치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고무줄, 술래잡기, 얼음땡 등 바깥놀이 하느라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습니다. 그 시절엔 장난감도 별로 없고 매일 하는 일은 골목에서 친구들과 온종일 노는 일이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느날 거북이 등처럼 터서 갈라져 있는 내 손을 보신 부모님은 저를 피아노학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피아노를 치면 아무래도 바깥놀이를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셨겠죠. 피아노 선생님의 하얗고 긴 손가락을 보고 나는 처음으로 제 손이 부끄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 나는 다시 사방치기와 딱지치기, 흥장난으로 손톱 밑이 새까만 아이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고운 손은 아니지만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서 몇년간 피아노를 배우

고 즐겁습니다. 피아노는 제게 아주 근사한 놀이였고,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가리지 않고 함께 골목길을 누비며 놀았습니다. 한번은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는데 공공 숨어버린 나를 친구들이 찾아내지 못해 저녁때까지 동네 옆집 연탄광에서 즐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온동네를 쏘다니면서 정말로 미친듯이 놀았습니다.

나의 어린시절을 생각하면 예쁜 연못과 그네, 강아지가 뛰놀던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 떠오릅니다. 그 집 대문을 나서면 친구들과 마음껏 놀던 골목이 나오고 그 골목을 지나 큰 길에 앉아 늘 생각했습니다. 저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마돈나, 20대, 90년대**

**-삶의 전환기, 고민기**

**-교육운동의 시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또문, 따또학교(대안학교)**



그 길의 끝을 궁금해 하던 10대를 지내고 20대. 삶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80년대 중반을 대학에서 보낸 우리 세대가 그렇듯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부조리하다는 것을 몸으로 머리로 느끼며 살아냈습니다. 대학학보사 기사를 하며 캠퍼스와 사회를 누비며 세상을 조금씩 더 알아갔습니다. 20대가 참 우울했어요. 세상이 다 이상하고 미쳐 돌아가고 내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고, 불안하고, 청춘이 불안한데 세상도 불안하니 맘 둘 데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한가지 결심을 합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 않겠다.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돈을 벌겠다고.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돈을 좀 많이 버는게 좋겠더라구요. 하하하. 아무튼,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시민단체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시민사회 태동기여서 더더군다나 열악했습니다. 뜻과 의지로 버틴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다행히 참 좋은 어른들을 만났고 그 어른들 몇 분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멘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을 조금씩 조용히 지속적으로(?) 바꾸려는, 내 삶을 나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여성주의를 탐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문화, 환경, 여성, 생태,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또문>은 젊은 나를 잔잔히 흔들었습니다.

20대 후반, 아주 우연한 기회에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늘 세상을 궁금해하던 나는 친구와 둘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은 시대였고, 여자들끼리 해외 배낭 여행을 한다는 건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는 일들을 모두 혼자서 했습니다. 인터넷 사정도 좋지 않아 여행을 통해 하던 일들을 발로 뛰어다니며 하나하나 물어가며 했습니다. 그 경험이 밑바탕이 돼서 지금도 자유 여행을 즐깁니다. 암울했지만 그 속에서 빛을 찾아, 길을 찾아 헤매던 때였습니다.

솔이석잔, 30대, 2000년대 초반

- 에코페미니즘을 만나다
- 여성환경연대
- 크리스찬아카데미
- 난나청소년수련관



30대가 되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뭔가 어설피고 낯설고 되는 일이 없는 20대를 우울하게 보냈던 나는 어서 빨리 30대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마지막 구절처럼 /그러나 대체 무슨상관이란 말인가/.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서른이 됐습니다.

열악한 시민단체 간사의 삶, 바뀌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육운동을 하는 친구들과 <따로 또 같이>라는 주말형 대안학교를 만들고 주말을 반납하고 열정을 쏟았습니다. <따또>학교는 아이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놀면서 제도권 교육에서 숨막혀 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숨쉴 수 있는 틈을 주고자 애썼습니다. 그 일이 새로운 교육을 위한 제도권 교육의 균열을 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데도 가슴 한편이 시리고 텅 빈 것같이 헛헛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호주로 유학입니다. 잠시 영어 공부를 핑계로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동안 모아뒀던 500만원을 털어서 비행기 티켓을 하고 랭귀지스쿨을 등록하고 기숙사 비용을 내고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수중에 딱 100만원을 들고 바다 건너 멜버른으로 떠났습니다. 유학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년을 못채우고 IMF를 맞아 잠시 귀국했는데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환경연대가 탄생하였고 그곳에서 에코페미니즘을 만납니다.

**노니는 령, 40대, 2000년대 초중반**

-관계맺기 / 언니들

-엄마가 되다 / 여성신문 / 페미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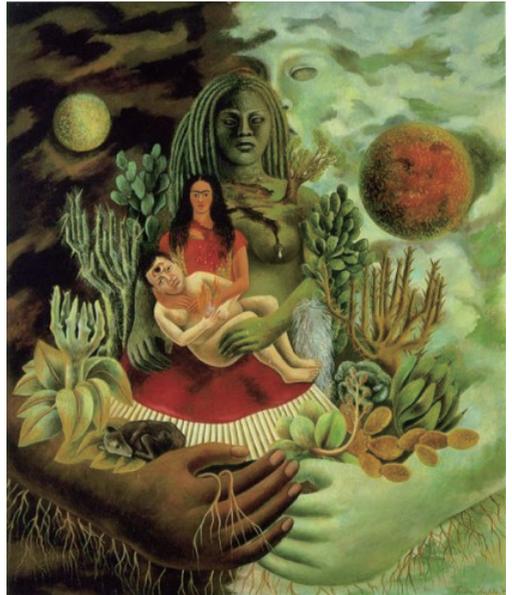


에코페미니즘은 나를 또 새롭게 열어줬습니다. 건강한 삶과 관계 맺기, 생태감수성, 여성주의의 확장 등 4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의미 있는 문제를 던져주었습니다. 30대에 만든 대안학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제도권과 연결돼 위탁형 대안학교로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탕고(춤)의 세계에 폭 빠져 음악과 한 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40대에 가장 잘한 일,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은 지금의 딸아이를 낳은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또다른 세계였습니다. 온전히 나를 만나고 나의 바닥을 보고 생명과 사랑이라는 의미에 대해 몸으로 절절히 알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정말 ‘사랑’의 의미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남편은 나를 끊임없이 마음 공부하게 하는 존재라면 아이는 나를 바닥까지 보게 하고 아이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일이라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딸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지금까지 머리로 이해했던 에코페미니즘, 여성주의, 생태, 관계맺기 등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한꺼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흑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신문에서 페미니즘의 현실을 알게 됐고, 주한미국대사관의 한미여성리더십포럼에 참여하고 미국무부 초청으로 IVLP를 다녀오고, 스웨덴 등 북유럽의 성평등정책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기획취재를 하고 워킹맘고통지수를 조사하는 등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기르면서 편집마감을 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1주일에 2~3일씩 야근은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워킹맘고통지수를 연구하고 있던 나는 바로 내 이야기라는 생각에 울면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원디, 50대, 2017년~  
-Play6 / 마냥 자유롭다  
-놀이로 배운다



신문만 마감하는게 아니라 이러다 내 인생도 마감하는게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코칭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대 부터의 삶은 정말 나 다운 삶, 일-생활 균형을 이루고 일과 놀이가 하나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어 놀이로배움 <플레이시스>를 창업 합니다. 그동안 일을 놀이처럼,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살아온 나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놓고 놀이가 일이 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창업은 사실 꿈도 꾸지 않았던 일입니다. 하지만 늘 새로운 일을 벌여왔던 나는 창업도 해보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새롭고 재미있는 놀이처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나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새롭게 나를 다지기 위해 즐겁고 행복하게 네팔 트래킹도 했습니다. 푼힐 정상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다짐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잘 놀아왔고, 앞으로도 잘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진들은 30대 이후 부터 마음속에 둔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의 그림과 사진입니다. 김점선 작가의 ‘마냥 자유롭다‘ 프리다칼로의 ‘우주와 지구~’ 꿈꾸는 나와 자유로운 나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재미있을까? 그럼 한번 해 볼까’ 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더라, 놀아보니 일이 되더라’ 입니다.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놀 때도 일할 때도 정말 대충이 아니라 뭐든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일들,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고 경험하고 추진하는 일을 말합니다.

어느날 딸아이가 “엄마는 참 독특해~어떤 일은 빠리하고 어떤 때는 또 게을러 ” 하길래 “응, 엄마는 슬로우슬로우 킁킁~이야 ” 하고 대답했습니다. 살아보니 빨리빨리 결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또 느리게 느리게 가는 삶도 있습니다. 생각은 느리게 그러나 행동은 빠르게 말합니다.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슬로우 슬로우 킁킁으로.

## 나에게 있어서 ‘전환’이란

연구소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제게 있어 전환은 무엇이나구요. 되짚어보니 나에게 있어서 ‘전환’이란 ‘또다시 연결’입니다. 일로 만난 사람들과 인생의 관계맺기를 하고 놀다보니 일이 되고 전환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언젠가 어느 자리에서 또다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서커스

복세편살 김주영

2020.6.10.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서커스> 강의 진행

성격과 지능은 교육과 환경으로도 발전될 수 있지만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 내가 살아온 40여년의 삶도 내 성격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으니 그 연구를 지지하는 하나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성격이 어떻게 10여년간 엔터테인먼트계 회사에서 일을 하다 30대 중반에 서커스 퍼포머로 전향하게 하였는지 이야기 하려고한다. 그걸 설명할 방법을 찾아가다 눈에 들어온 것이 MBTI인데, 나의 MBTI성격 유형은 ENFP 스파크형으로 몇가지 특징으로 챗터를 구분해 보았다. 재미있게 읽어주시라.

## “하기 싫은 것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다”

어릴 적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장래 희망이었을 것이다. 수업 시간에 장래 희망을 그려내라고 했을 때 뭘 그렸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나의 장래 희망은 매번 바뀌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오남매 중 넷째로 자라면서 그저 언니 오빠가 하는 걸 따라해보기 바빴다. 다들 배우니 피아노도 배우고, 오빠가 기타를 배우면 따라 배우다가도 갑자기 바이올린 하겠다고 우기기도 하고, 언니가 주산을 배우니 졸라서 따라갔다가 두 달을 못 채우고 다시 피아노 학원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첫 무용 발표회



두 번째 무용 발표회에서 엄마와 함께



희망 발표회  
마지막 편지



25살 때 운동삼아 다시 발레를 하지만  
또 부상을 입고 그만둔다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뭔가에 꽃힌 듯 발레를 배우겠다고 결심하고 집요하게 부모님을 졸라댔다. 거의 일년을 졸랐는데 그도 그럴 것이 동네에 있는 피아노 학원은 다 돌아다녔을 정도로 금방 싫증을 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발레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발레는 아주 힘들고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 아마 이게 제일 큰 이유였을 것 같기도 하다 - 나중에 배도 많이 고파진다고 나를 설득했지만 그런 건 전혀 귀에 안들어오고 죽어도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그러다 어머니 화장대에 조각칼로 음각 메시지를 새겼다. '발레 학원 보내줘'라고. 여기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음을 몸소 체험한다. (호러 아님).

여기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음을 몸소 체험한다. 대신 최소 1년을 다니기로 약속을 하고 첫 발레 수업을 갔다. 그 때부터 무릎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6년을 계속했다. 내 인생에서 강한 집중력을 나타낸 것 중 하나가 발레이다. 내 삶은 그 때부터 온통 발레로 가득 찼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그랑제떼(Grand jete), 골목길을 돌 때는 빠루엣(Pirouette)을 하며 돌아다닐 정도로. 밤낮으로 발레만 하면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던 중 무릎 부상으로 발레를 그만두게 된다.

**“위기 대처능력이 뛰어나다”**

**“상대방의 말에 민감하나 신경쓰지 않는 척 한다”**

발레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자르지 않았던 긴 머리를 핫김에 잘라버렸다. 거울 속 긴 머리를 보면 이제 촛출 수 없다는 생각에 더 슬플 것 같아서였다. 친구들이 위로해 줄 때마다 이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면 전혀 슬프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은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고작 16살이었는데 말이다.

나를 심각해서 다른 집중할 것이 필요하며 여기저기 다시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바이올린으로 눈을 돌리자 온 가족이 반대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집에서 소음을 낼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이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다가 평소에도 좋아했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에 갑자기 관심을 가지면서 성우라는 직업이 눈에 들어온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었지만 열심히 리서치를 한 결과, 한국에서 보다는 일본에서 성우라는 직업이 더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다소 무모한 결론이었지만, 일본에서 성우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다음 날 부터 일본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다. 새벽반 수업을 듣고 학교를 갔다가 돌아와서는 잠들기 전까지 내내 일본어 공부만 했다. 당장 일본 유학을 갈 수 없다면 주위 환경을 일본처럼 만들면 된다면 내 인생의 집중력을 쏟아부었다. 아는 어휘를 총동원해서 혼잣말은 일본어로, 차를 타고 갈 때는 지나가는 차 번호판을 일본어로 읽는 건 기본이고 학교 수업 내용을 머리 속으로 일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서랍 속에는 항상 사전이 있었고, 일본어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쉬는 시간이 더 기다려졌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실력이 늘어 간 건 아니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외국어 스피치 대회에 나가게되고 전체 대상을 받게 된다(내가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다).

그 때부터 학교에서는 외국어 특기자처럼 대우해주면서 필요할 때는 수학여행 같은 학교 행사에서도 빼주는 등 특혜를 주었다. 그런 행사보다 일본어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었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게 된다. 심지어 지방 방송국이었지만 나의 외국어 학습법을 주제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다. 방송 작가님이 말을 애매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방송국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제 안한 날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 후 햄버거를 먹으러 가기로 했고 프리토킹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놓치기 싫어 시간이 없다고 했다. 물론 나중에 후회했지만(웃음).

해외 여행은 무조건 일본이었다. 다른 나라는 눈에도 안 들어왔고 일본이 아닌 곳에 갈 시간과 돈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때는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니이가타라는 곳에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일본을 가기만하면 다른 도시를 돌다가도 언제나 최종 도착지는 이 곳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일본인 특유의 친절함에서 해 준 말이었지만 일본인처럼 일본어를 한다는 칭찬을 들으며 ‘자부심 충전 여행’을 즐겼었다.

이렇게 나를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절 부산에서 열린 외국어 경시대회를 나가게 되고 대회장에서 만난 한 살 위인 해외파(해당 언어의 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참가자) 언니랑 친해져서 인터뷰 테스트 전에 워업으로 일본어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실력으로 이 대회를 나왔냐는 말을 듣고(세상에나) 그 충격으로 나머지 시험을 모두 망쳤다. 지금 같으면 자격이 됐으니 나온 거라고 쓰아붙여 줬을텐데 그 때는 많이 모자라죠라며 마냥 웃었다.

남들이라면 그냥 무시할 법도 한데 나를 분했던지 부산에서 돌아와서도 신랄한 비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때부터 하루에 4시간을 자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6시에 일어나 학원 수업을 들으러 가는 생활을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했다. 이렇다보니 친구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학창시절 친구들과 많이 지내지 못했던 게 아쉽고 지금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게 힘든 이유가 아닌가 싶다.

아무튼 나를 독하게 공부하여 성과는 있었다.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외국어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교육부에 외국어 특기자로 등록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 대회에서 상위권 수상을 하면 국내에 있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다른 수상자들은 당연히 서울권의 유명 학교들을 지망했는데, 나는 일본 만화의 한 주인공을 따라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선택했다(나는 멋있음으로). 그 학교에 지도 교수님이 계셨고 4년간의 전액 장학금을 미끼로 사용하시긴 했지만 한국 내에서의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지금은 약간 후회하긴 한다(만화는 만화일 뿐이었는데.)

그렇게 하여 입시지옥이라는 것은 1도 경험하지 않고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시간이 남아서 재미로 본 교환학생 시험에 합격하여 일본에서 공부하게 된다. 이 때도 일이 잘 풀려서 생활비까지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되어 부유한 유학 생활을 한다. 이 때도 성우를 꿈꿨냐고? 아니. 많은 대회를 참여하면서 그 꿈은 이미 오래 전에 버렸고(웃음) 당시엔 동시통역가를 꿈꾸며 공부를 계속해 가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노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학교에서 또래들이랑 어울리기 보다는 동네 주민들과 더 어울리면서 인맥을 넓혀 갔다. 이러다 보니 라디오 방송 녹음 때 방청객, 전시회 스텝, 신년 축하 행사 스텝 등 재미있는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도 많았다. 졸업 학점을 거의 다 채우고 한국 학교로 돌아와서는 문예창작과 중국어 공부를 하며 한편으로는 통번역 아르바이트 일을 찾아 지원하면서 나름 경력을 쌓았다.

일본에서도 시청 통역으로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경력을 내세워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서 통역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된다. 섬유, 광학 전시회 등에서 기업 통역을 하면서 차후에도 통역 요청을 받았다. 지방 방송국이었지만 다큐멘터리 제작 때 통역도 맡고 자막 번역도 하는 등 아직 학생 신분이었지만 이미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했었다. 이렇게 나는 통역가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중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었으니 2개국어로 일을 하면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나쁘지 않을 거라는 김치국을 마시며.



니이가타의 절친 히로미와 함께



니이가타 시에 상주하는 러시아 서커스 팀. 서커스 공연을 보는 걸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내가 하게 될 줄이야

사진 배낭 여행 중 간 도쿄 모터쇼.  
대체 누가 찍어 준 건지 기억은 안나지만  
저런 오글거리는 포즈를 잘도 찍어 줬구나





친구의 친구네 집에서  
민페를 끼치며 여행한 해.  
여긴 교토



사진 코베 시에 있는 외국인마을.  
진짜 누가 찍어 준 걸까



홋카이도 여행 중



일본에 놀러 온 친언니와 함께 기모노 체험



라디오 방송 공개 녹음 방청객 아르바이트



통역 알바하던 때였던 것 같은데 좀 자신 붙어서 여유부리는 중.



국제 광학 박람회 통역팀

**“계획하기 보다는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하기 싫은 것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다”**

IMF 구제 금융 사태와 카드 대란 등의 경제 위기가 이어지며 연일 취업난이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던 때에 졸업을 하게 되었다. 취업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구직 활동에 계속 실패하다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진학하는 일도 많았다. 프리랜서 통역가를 꿈꾸던 나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데 서류 넣는 곳마다 다 떨어진다. 처음에는 취업난 때문이겠거니 했는데 계속 불합격 통지를 받을 때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이러던 중 친척의 도움으로 즉 낙하산으로 회사에 취직하게 된다.

만화, 애니메이션 업계였다. 다른 업종보다는 업무에 적응하기 쉬우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내 직속 상사들은 누구 감독의 몇 년도 작품, 주인공 이름은 물론이고 총 몇박 짜리 애니메이션인지도 꿰고 있을 정도로 업계에서 유명한 ‘덕후’들이었고 나의 희박한 지식으로 그들을 따라가기란 쉽지 않았다. 좋아하지도 않는 장르의 작품을 봐야 할 때는 즐기 일수였고 하루종일 대본 복사같은 일을 해야 할 때는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들이 공금 횡령을 하면서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서 새로운 팀장과 즐겁게 출장을 다니며 순조롭게 회사 생활을 한다.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 몸을 움직이던 때가 그리워졌고 운동삼아 다시 발레도 시작했다. 이 때부터 인생의 균형이 맞는 느낌이 들면서 사는 게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직급도 올라가고 해외 출장도 많아지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일도 늘어나 바쁘지만 만족하며 보내던 중 동료들이 자꾸 이직을 한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받거나 장기간 이직 계획을 세워 옮겨갔다.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나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난 무계획인데..... 그래서 다짜고짜 지인에게 헤드헌터를 소개받아 상담을 가봤다. 내 나이에 옮기는 건 무모한 짓이라고 조언을 하더라. 그 때 나이 28살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기만 한 나이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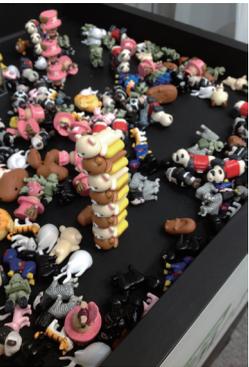
그래도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고민을 계속했다. 생각해보니 아침에 9시 출근하는 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했다(이건 지금도 동의하는 바이다). 다른 직업을 알아보기로 하고 인터넷에서 직업의 세계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건 당시 꼭 빠져 있었던 만화, 신의 물방울에 나오는 소믈리에. 쉽진 않았지만 장기 휴가를 받아 프랑스로 날아간다. 중남부 지방의 와이너리를 돌며 와인을 엄청 마시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님을 깨닫는다.

즉흥적인 ENFP이지만 나름 플랜B를 준비했었고, 헬리콥터 조종 체험을 하러 갔다.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할 수 있으며, 영화 업계에서는 일이 끊이질 않는다는 말을 잡지에서 읽었기 때문이다. 헬기에 타는 순간 엄청난 소음 때문에 포기한다.

플랜C도 있었다. 한 때 유행했던 조향사. 프랑스 가는 김에 모두 알아보고자 했는데 화학을 프랑스어로 공부해야 한다는 첫 설명에 발길을 돌렸다. 28살의 나이로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긴 휴가를 보내고(나름 큰 결심이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 당분간은 이 업계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인생의 낙을 발레에서 찾기로 했다. 그러던 중 또 부상을 당하고 한동안 목발 생활을 한다.



이런 재미있는 업계에서 일을 했다





직업 체험 in France



**“새로운 시도를 좋아한다”**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한다”**

**“내면에 열정을 지녔다”**

목발을 푸는 날 의사에게 다시 발레를 해도 괜찮겠냐고 문자 발레가 사교댄스도 아니고 그 다리로는 무리라는 답을 들었다(청천벽력). 그 답을 듣고 실망했냐고? 아니. ENFP의 위기 대처능력은 여기서도 발휘된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사교댄스학원을 검색했고 우연히 어느 아르헨티나 탱고댄서의 춤을 보고 한눈에 반해 버린다. 다시 검색을 해서 압구정동의 어떤 동호회를 찾아 그 다음 주부터 수업에 참여했다. 일본영화 “셸 위 댄스”의 주인공들의 심정이 매우 이해가 되더라.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내내 춤 생각뿐이고, 무조건 칼퇴근이었다. 수업이 있는 날은 새벽부터 가서 일을 하더라도 절대 야근은 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탱고는 수업 외에 사람들끼리 모여 춤을 춘다. 그런 곳을 밀롱가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무도회, 클럽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배우던 곳은 수업 시간 후에 이런 밀롱가까지 매일밤 여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수업 있는 날만 가야지, 하다가 하루만 더 늘려야지, 하루만 하루만이 계속 늘어나 거의 매일 회사 퇴근 후 출근을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발레를 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춤을 습득하게 되고 좋은 파트너도 만나 같이 수업을 하거나 공연 활동을 했다. 탱고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본업을 그만두고 프로 댄서로 전향하는 경우가 왕왕있다. 하지만 난 회사 일도 나름 재미있었기 때문에 두가지 일을 병행하게 된다.

탱고를 배우면서 비현실적인 자유분방함이 많이 분출되는데, 춤추는 데 필요한 슈즈나 드레스 구입, 개인 레슨비, 해외 워크샵 참여 등 막대한 지출을 수년간 했고 통장 잔고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다소 과하게 지출하기는 했지만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아깝지는 않다.



아르헨티나 댄고를 추기 위해서 해외 여행을 다니던 시절



밤새 춤추며 놀던 시절



탈인형 아르바이트

한편, 회사 생활도 매우 즐거웠다. 마음 맞는 선배들이 있어서 애니메이션 성우들과 일을 해보기도 하고 캐릭터 인형탈을 쓰고 극장판 애니메이션 시사나 홍보 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많이 얻는다.

그러다가 모 작품의 뮤지컬에 탈인형 배우로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는데 말도 안된다고 거절했지만 무대 제작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을 견디지 못해하는 경향이 있다”

직업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콘텐츠 라이선싱이 어찌고저찌고’ 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문득 내 직업은 회사원임을 깨닫게 된다. 그 때부터 직장 말고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졌다. 아침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거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시 다른 일에 기웃거리게 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직업이 무엇인지 묻곤 했다. 보석감정사, 저작권 관리사가 멋져 보여서 수박겉핥기 수준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으나 이내 열심은 식어 버린다. 그러다가 해외 출장지에서 태양의 서커스단원 친구를 만나게 되고(이 때만 해도 내가 퍼포머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공연 기획 쪽을 진지하게 더 알아보기로 한다.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일본 쪽 비즈니스는 잠정 중단하기로 회사가 결정을 한다. 그와 동시에 사내 파벌 싸움 등으로 회사 내 입지가 좁아지며 퇴사를 결심한다(원래 주인공들에게 이런 시련들이 닥치면서 전환이 생기는 법!).

퇴사 후 ‘만화 번역’이라고 쓰고 ‘막노동’이라 불리는 일을 비롯하여 일이 들어오는 대로 하다가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를 배우고 있었던 친구한테 ‘와서 공연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대로 날아간다(막노동 안녕~)



아르헨티나 거리



피아졸라 극장

아르헨티나에서 지냈던 숙소



역사 깊은 탱고클럽에서의 공연

그리고 4개월 남짓한 짧은 시간동안 사람 사는 거 세상 어디나 똑같다란 나름의 진리를 깨닫고 한국으로 돌아와 프로 댄서로 일할 준비를 하는데, <파워레인저> 감독님과 일 할 기회가 생겨(맞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무적의 파워레인저. 너나 나나 할꺼 없이 빨간색 쫄쫄이 1번을 하겠다고 애들이 울고불고 했던 그 파워레인저다) 드라마 제작사에 입사하게 된다. 결코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사내의 여러 문제들도 있었지만 문제는 다시 출퇴근하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반복적 일상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는 중에 알게 된 친구와 공연 일을 하게 되었고, 역시 공연 쪽 일이 적성에 맞다는 생각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나 많다고 스스로 주저했다. 그 과정에서 이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바리스타가 카페 오픈을 추천해주었고 퇴사를 꿈꾸며 공연 대신 커피 공부를 시작한다. 이 바리스타의 도움으로 몇 개월간 새벽까지 에스프레소를 마셔 가며 바리스타 과정을 공부했다. 카페인 때문인지 재미있어서 그런지 밤새 커피를 내리다 아침에 출근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



탱고를 추면서 발로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





뉴욕 가기전에 마지막으로 만든 라떼 아트

공연도 하고, 커피도 내리고, 사람도 만나고, 퇴근 후 생활은 너무나 즐거운데 출근 후 생활은 괴로웠다. 몇 명 안 되는 인원 안에서의 파벌 싸움, 잦은 분쟁들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꼈다. 이렇게 일하느니 그만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퇴사를 한다(쿨하게!)

이 때 운명의 장난인지, 뉴욕의 서커스 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가 동료가 서울을 가니 케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퇴사도 했겠다 특별히 할 일도 없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고, 어쩌다 어영부영 공중 곡예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다음 수업에도 와주길 바란다는 선생님의 영업 멘트에 꼬여(사실, 영업멘트가 아니라 실제로 잘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재능이 있다는 말에 그 친구 수업을 모두 함께 듣게 되었고 친구가 떠난 다음 달, 뉴욕 아카데미 원장님의 한국 방문 출장이 있어 함께 했던 두 친구들의 추천으로 미팅 자리가 마련되게 되었다. 가벼운 식사 자리였는데 마지막에는 뉴욕에서 서커스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만세!) 그래서 뉴욕으로 갔다(급뉴욕).

뉴욕 생활은 고행의 연속이었다. 간 김에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요가부터 시작해서 공중 곡예, 강사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다. 거의 하루에 9시간 훈련을 하다보니 뉴욕에서 아는 곳이라곤 숙소-학교-마트 밖에 없다. 관광은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 이후로 아직 가질 못했다(젠장). 그리고 이 뉴욕 생활 이후, 나의 서커스 퍼포머 시기가 도래한다.



유니언스퀘어 신호등에 매달리다



강사 트레이닝 코스 수료식

## “난관에 직면했을 때 더욱 자극을 받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매우 독창적으로 대응한다”

사실 드디어 서커스 퍼포머가 됐다!! 고 말하고 싶지만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서커스 퍼포머는 희귀한 일이었다.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에는 플라잉요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가 내 수업을 열었다. 아는 사람은 탕고 추는 사람들 밖에 없으니 그 쪽을 공략하여 체험 수업을 열었다. 매 수업은 매진이 되었다. 하지만 체험 수업 이후 아무도 남지 않았다. 다시 제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초창기에는 그룹레슨인데 개인 레슨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사람 수는 많지만 여전히 안정적이진 않다.

수업만 하다 보니 재미가 없어졌다. 긴장감없이 연습을 하다보니 안되겠다 싶어서 아는 뮤지션들에게 공연을 제안했다. 딱 한 명에게 긍정적인 대답이와서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 반응이 좋아 대극장 공연 제안도 받는다. 이제 공연의 길이 열리나 보다 했다.



첫 공연을 한 소극장



두 번째 공연을 한 대극장

하지만 그 이후로 탱고 일 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두 공중에 기구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고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였다. 그럼 공중 설치가 필요없는 기구가 있으면 되겠구나 해서 바로 제작을 했다. 그 기구로 제안서를 써서 돌렸지만 여전히 일이 들어오지 않았다.



탱고공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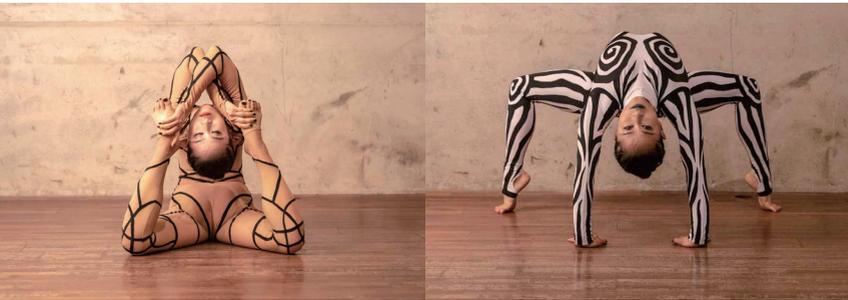
개인공연 : 바다요정 / 해녀



사람들이 이 기구에서 움직이는 걸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친구 결혼식에 축하 공연을 내가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한다. 신부측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공연비도 챙겨 주셨다(어머님, 만세!). 친구의 소개로 지역예술축제에 참가도 하게 되면서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수면 시간을 줄여서 공연 준비를 했다.



개인공연: 거미 / 모기



콘톨션

그러다가 왼쪽 어깨 인대 부상을 당한다. 다행히 비수술 치료를 추천해 준 의사가 있어서 어느 정도 회복은 하지만 예전같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활 운동을 병행하면서 콘톨션(Contortion)이라는 다른 종목을 시작한다. 이렇게 하여 콘톨션리스트로 일할 기회가 생기기도 했지만 훈련이 어깨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씩 일을 만들어 가다 보니 지금은 모 스포츠 브랜드 트레이너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베트남에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러 가기도 하고, 여러 오페라 작품에도 참여하면서 서커스 퍼포머로 활동을 하고 있다.



베트남 수업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오페라: 피노키오



오페라: 팔리아치



오페라: 개구쟁이와 마법

재미있고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을 지 매순간 자잘한 고민을 하면서 나이 어린 친구들이 잘 하는 거 보면 자신이 초라해 지고 좌절도 하면서 살고 있다.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왔다.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찾아 다니며, 때로는 과감히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내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안되는걸 되게 하면서,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나는 ‘직장인’이 아닌 ‘퍼포머’라는 직업인으로서 지금 두 발 딛고 서 있더라.



스포츠 브랜드 트레이너 활동

내게 전환이란, 다음을 기대하게 하는 정거장이다. 서커스 퍼포머라는 일에서 성공을 하리란 자신은 없지만 직업을 또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긴다 해도 기쁘게 받아들일 자신은 있다. 지금의 삶이 종착역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한 정거장 더 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정거장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 멀쩡한 고속도로를 두고 뭘 믿고 번지점프를?

피터팬 김대영

2020.6.17. <멀쩡한 고속도로를 두고 뭘 믿고 번지점프를?> 강의 진행

## 2018년, 대사관을 나오다

이 글을 쓰는 2020년 7월은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기운을 느끼고 있다. 2019년 7월에도 내 마음에는 지금처럼 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부동자세로서 있었다. 2018년 대사관을 나올 때의 마음, 그리고 2019년 힘들었던 시기들, 그리고 2020년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마음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고자 한다.



대민 외교 전문위원 Public Diplomacy Specialist 으로 보낸 시간들은 언제 기억해 보아도 행복, 그 자체였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이란 나라의 해외공무원으로,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형성하는데 내가 직접 기여하는 일이었다. 대민 외교 영역은 국가로서 미국이 갖고 있는 가치를 우방국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내가 맡은 분야는 여성리더십·예술·문화·청년·시민사회·미국학 등 이었다. 나는 학부에서부터 석사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도 나는 미국에 대한 연구를 선택했다. 실제로 외교 현장에서 내가 공부하며 꿈꾸었던 일을 커리어로 가졌기에 내 삶에 감사했다. 국제관계에서 모든 국가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도가 점점 커진다고 이해하고 있었기에,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 및 가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국인 전문가들과 만나도록 하고, 예술과 문화 행사를 통해 미국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한국 오피니언 리더들도 찾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어서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2018년 10월 말에 아무런 계획 없이, 커리어 전환을 하겠다는 마음만 안고 퇴직을 했다. 20년을 한 기관에서 무탈하게 지낸 덕분에 나이 50대에 맞이한 전환기는 질풍노도의 시간이었고, 상상을 뛰어 넘는 모든 다양한 색깔의 고생들을 경험했다. 20년을 하루 같이 열심히 달렸더니, 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전환기,” (부디) 딱 한 번만 있을 출근할 일 없음의 시기를, 충분히 경험하고, 즐겨보자 싶었다. 그리고 퇴직 이후 정말로 많은 일들이 내게 닥쳐왔다.

## **탈탈한 언니들을 위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미 2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탈탈한 언니들>을 위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레 대사관을 떠나겠다는 선택을 했던 시간으로 되돌아가 보았다. 대사관에서의 생활은 자긍심과 뿌듯함으로 설명될 수 있다. 내가 오랜 시간 공부를 했던 것을 실제 외교 현장에서 적용하고 내 역할을 다했다는 뿌듯함이 우선적으로 떠오른다. 대민 외교 Public Diplomacy를 펼치기 위해, 제주도로, 울릉도로, 목포로, 부산으로 전국지방곡곡으로 출장을 다니면서도 늘 신이 났던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걷고 싶다”

는 바람을 간직했었다.

대사관은 정년이 거의 보장이 된 안정된 일터이다. 더구나 나는 내가 하던일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게 일하면서 월급도 받는구나”를 아주 자주 느낄 정도였다. 그러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동료들은 “퇴직할 때까지 아직 15년이나 남았는데”라는 놀람을 감추지 못하며, 나의 갑작스런 결정에 걱정과 덕담을 나누어 주었다.

내가 그만 둔다는 소식에 “로도 당첨 되었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부동산으로 갑자기 부자가 되었나요?”라고도 물었다. 내가 그만둔다는 소식은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간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라는 소문으로까지 와전이 되어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었다.

나는 대사관에서 마지막 날까지 내 마음의 100%를 쏟았다. 커리어를 이어서 갈 곳을 정해 두고 나오지도 않았다. 우리 가정은 맞벌이 부부이고 그간 현재에 집중하며 충분히 즐겼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미래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연기 하기보다는 딸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 주고 싶어서 지난 5년 동안 후회 없을 만큼 세계 여행을 다녔다. 여행은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즐거웠다. 그러나 퇴직 후를 위한 경제력을 확보해 두지 않은데다가 갑작스런 퇴직으로 소득원이 절반으로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가족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었다.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 **커리어 전환기의 시작, 그리고 어둠**

매일 매일의 일상에 충실하면, 앞날도 그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커리어 전환기를 갖고 100% 몰입하면, 새로운 일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경력 보유/단절 여성들을 위한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었지만, 나에게서는 적절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이 시간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길었고, 아주 힘들었었다. 나는 미국 공무원이었

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장 고궤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나를 주장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계산하고 따지는 훈련 등을 해 본 경험은 하나도 없는 채로 50살을 맞이했고,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일을 찾는 첫 발을 딛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했었어야 한다”는 자책의 목소리도 마음에 떠올랐고, 그때 마다 다시 생각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근무 중에, 휴가 중에, 퇴근 후에 과연 다른 마음, 즉 그 다음을 준비할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러한 나의 자책과 후회와 관계 없이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커리어 전환기’라는 칠흑 같이 짙은 어둠 속에서 툭 툭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치받아 올라와 나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다. 감정에 휘둘려서 힘든 적도 많았다. 이러다가 영영 재기가 불가능하면 어쩌지 라는 극도로 긴장이 되기도 했다. 그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 나는 나의 기억과 삶과 대면해야 했다.

## 나락으로만 떨어졌던 2년

트라우마

자아 비난

목적 있는 삶



경제적 어려움

타인의 추한 모습

관계의 재조정

커리어 전환기의 나를 구성하던 단어들

## 첫 번째 기억. 가족

나의 삶은 ‘쉽’이 없는 삶이었다. 대학 때부터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지런히 아르바이트도 했었다. 그렇게 부지런히 달리지만 하다가 처음으로 맞이해 본 ‘쉽’... 쉽지는 않음으로 오지 않았다. 마음의 몸살이라고 해야 할까? 지금까지 잘 달리던 열차가 급정거를 하다 보니, 온 사방에서 그간 내게는 없다고 믿어 왔던 것들이 정체를 드러내었다.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심하게 나를 괴롭혔다.

### 첫 딸을 낳은 엄마가 한 첫 마디..... 내 존재에 대한 거부.

내가 11살이었을 때로 기억한다. 엄마는 나를 꼭 껴안고 말했다. “너를 낳자마자 겨우 정신을 차리는데, 딸이라는 거야. (어찌나 속상했는지) 집어넣고 다시 하고 싶다고 간호사한테 말하고 싶을 지경이었어”라고. 그 말이 당황스러워서 귀를 막고 싶었지만 내 팔을 꼭 잡고 있는 엄마.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아니야”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내 코 끝에 바로 붙어 있다시피 한 엄마의 얼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엄마, 딸이라서 실망했구나. (태어나서) 미안해”라고 해야 자식의 도리인가를 초등학교 4학년이던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눈 바로 앞에 있는 엄마의 시선을 부지런히 피했던 기억이 난다.

친정 부모님은 당신들이 누리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 만큼이나 높은 ‘남아선호’사상을 비롯한 차별 의식이 있었다. 매일 먹는 밥상머리에도 아들의 자리는 모두가 챙겨야 했다. 초등학교 학부모회의에서도 엄마는 아들만 챙겼고, 막내와 나의 부모 자리는 항상 핑크가 났다. 주저함은 없었다. “엄마 아빠 재산은 모두 내거야. 알고 있지?”라던 초등생 장남. 안타깝게도 이 장남은 부모님이 그렇게 지원을 쏟아 부었지만 그에 비해 성적이 무척 저조했다. 그러다보니 중학생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았던 ‘딸’인 나에게 경쟁적인 태도를 보였고,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나는 장남인 동생의 어깨에도 못 미치는 자그마한 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 없이 맞고 욕설을 들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네가 왜 애의 신경을 건드려?”

라며 장남의 편을 들었다. 장남을 쳐다봐서도 안 되고, “왜 때리냐?”고 물어서도 안 되었다. 그냥 ‘딸’이라는 존재 자체가, 칭찬은 커녕, “공부해서 뭐 하려고?”라고 집요하게 말을 해도 기대를 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성적을 내는 경계의 대상이요, 원망의 목표물이었다.

경력전환기에 있는 내 모습을 ‘약자’로 의식해서일까? 어렸을 때 집에서 받았던 온갖 차별적인 대우와 다른 사람을 무시하던 말들에 대한 기억이 자꾸 또렷이 올라왔다. 그게 언제 일인데…… 나이가 50이 넘은 나는 흔들렸고, 쓰러졌고, 고개를 드는 것조차 거부하는 절망으로 빠지게 되었다. 이러려고 그 좋은 직장을 내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닌데… 철부지도 아니고…내가 이렇게 못한 사람이었나?

## **퇴직 전, 퇴직 후, 사람들과의 관계에 몹시 휘둘렸다**

이직이라는 단어가 스물스물 내 마음 속에 들어 왔을 때, 선택을 하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가족들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던 동료들과도 환갑까지 같이 하고 싶었고, 일로서 만난 관계이지만, 서로의 비전을 나누었기에 컨택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뛰어 넘어서 따스한 인간관계가 형성된 컨택들 extended colleagues과 헤어지는 것도 나를 주저하게 했었다.

순진했던 탓일까. 사람의 관계가 원래 이러한 것을 그 때는 몰랐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싶었고, 나는 예외일 것이라 착각을 했었다. 퇴직 후 믿었던 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지는 경험을 했다. “사업을 하면 저렇게 해야 하나?”라고 할 정도로 마음과 몸이 상했던 경험을 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디어와 시간, 정성을 쏟아 부었는데, 막상 상품이 출시될 즈음이 되자 개발자 이름에서 자신의 이름만 쓰는 30대 청년을 만났다. 그 사람은 당황해 하는 나에게 “이건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라는 그 사람에게 “이 정도면 충분히 경험했어요”라고 말하며 물러서는 내 모습을 지켜보아만 했다.

##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입는 일은 계속 되었다.

이렇게 2019년 새해를 맞이하고, 봄을 보내고, 여름을 기다렸다. 돈을 벌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놀랍게도 이제까지 전문가로 살아온 내게, 그냥 나가서 하루 일당을 벌 수 있는 기술도 없었을 뿐더러 그럴 마음도 없었다. 이러려고 나온 것은 아닌데... 나에게 대한 믿음을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비록 경력단절자/보유자이지만, 그건 나만이 갖고 있는 작은 생각이라 믿으며, 가슴을 활짝 펴고 열린 마음으로 정기적인 네트워크 모임에 참여했다.

“대학원씩이나 나오고, 박사까지 공부하고, 경력이 화려하던 여성들이 어느날 애를 키우겠다면서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집으로 들어가는 건 정말 의식 없는 행동이야. 난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정말 경력보유자들이란! 왜 공공재로서 자신에게 그간 투자되었던 것을 잊어버리는거지?”

오래간 만에 참여한 네트워크 모임에서 난데없이 들려온 일장 연설. 긴 테이블 저쪽 끝에 현재 경력단절자/보유자인 당사자가 앉아 있는데, 굳이 테이블을 가로질러 이끌 때까지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경력 보유자/단절자들과 직접 만나서 하루 일상이 어떤지를 심층 인터뷰 정도는 하고서 저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일까?(울컥)

그 가슴 아프게 꽃히는 말을 뒤로 하고, 경력보유여성이지만 지금은 단절된 내가 이 경력이 화려한 이들이 모이는 자리에 와서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았다. 그 시간은 앞으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동시에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다. 그 사람이 비판하는 그 경력단절자/보유자 그룹에 내가 있었다.

## 내가 주저앉아 있던 곳은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동굴이었다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내려만 가면 안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깜깜하기만 한 건지, 나는 내가 주저앉아 있는 곳이 칠흑같이 어둡고 습한 기운이 땅에서 올라오는 지하 동굴 같이 느껴졌다. 안타까운 것은 그 동굴에서 깨진 틈 사이로 들어올 수도 있는 빛조차 나는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냥 그 곳에서 얼굴을 파묻고 하념 없이 머물러 있고 싶었다.

### 나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 멈춰 서서 숨을 가다듬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만큼, 아니 평균보다 훨씬 더 받은 나다. 교육적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재기가 어렵다면, 곤란한 일이 아닐까? 20대, 30대, 40대 아주 아주 신나게 커리어를 쌓았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자아실현도 했고, 사회적 기여도 했다. 이 정도면 재능이 있다고 자기 평가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돌아 갈 수 없다면 뭔가 ‘내’가 아니라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모두에게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모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나의 성별, 사회적 배경, 신체적 특징, 나이 등등이 이유가 되어서 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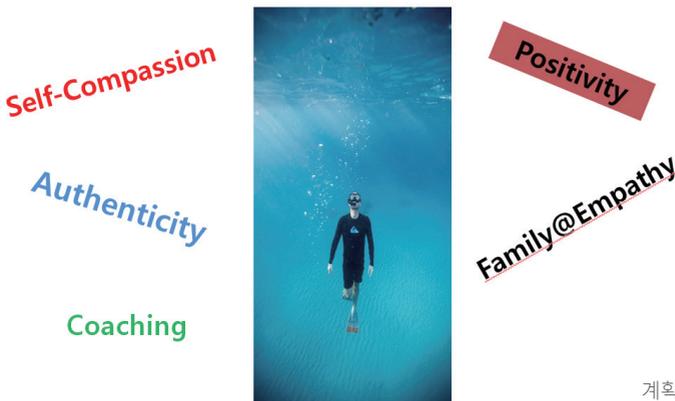
람으로서의 사회적 가치가 줄어들거나 막힌다면 이걸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야라는 생각으로까지 내 마음은 달려갔다. 그러면서 “그래, 50살이라는 나이에도, 충분히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도,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례가 되어 보자”라는 마음이 들었다.

## 커리어 전환이라는 엄청난 선택의 조짐은 이렇게 들렸다

먼저, 2018년 여름휴가를 아무 계획을 잡지 않고 떠났다. 의도적이었다. “해야 할 일”이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계획이 하나도 없는 아침에 갑자기 목적지가 보였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니라면”이란 생각이 먼지만큼 떠올랐던 때 내 마음 속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가슴이 뛰는 나를 발견했다.

사람들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지만, 내가 만족을 느끼기 위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만했다. 내 마음의 레이다가 우뚝 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50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 인생 클라이막스에서 펼칠 야심만만하게 레거시 프로젝트로 무엇을 상상하는지를 나는 입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 무계획이라 무한계획이었다



계획은 없었다. 직관을 따랐다.

##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영영 못 나올 것 같던 그 심해에서 조금씩 발길질을 치며 수면 위로 떠올라오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위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 내 마음을 억누르던 바위 덩어리들이 하나씩 정체가 드러나고 이 돌덩어리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 버리자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내 몸과 마음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떠올라지는 것이었다. 지금껏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살던 삶은 “부모에게서 인정을 받고자 안간힘을 쓰던 11살 나였던 것”이다. 외부에서의 인정이 소용이 없다는 깨달음과 굳이 나를 거부하겠다는 인연을 놓아 버리는 마음을 받아들이자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 속에서 들리는 내 관심사인 욕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디든지 트레이닝을 신청했고 스킬을 익히고 내 컨디션을 챙기고자 했다. 이 여정에서 처음으로 만난 것은 자기행김 Self-Compassion 트레이닝이었다. 나 자신을 챙기겠다는 마음, 즉 외부 상황이 어떻던가에 상관없이 나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가족들과 조금 더 표현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코칭을 받으면서 이 마인드셋은 점점 더 나의 것으로 체화가 되었다. 코칭시간을 무척 기다리기 시작했다.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지만 또 효과적이었다. 내가 내 마음을 혼자서 깊게 들어가기 쉽지는 않은데, 코칭 시간에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지점까지 생각을 깊이 파고 들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직장과 가정에서 주어진 환경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내가 중심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를 지켜보았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의도한 무게획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 하얀 색 도화지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부터 큰 덩어리로 하나씩!

경력전환기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나 자신에 대한 배포를 키우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커리어를 맹렬히 쌓았

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욱 급속도로 기존에 하던 일로 되돌아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보다는 주변에서 기대되는 요구에 빛의 속도로 순응해 가려는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흐름에 휘둘려서 중심을 잃게 되면 다시 나를 찾는 과정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도 그런 맹렬한 본능을 거부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갈등들과 싸워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명상 Meditation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내 마음에 들어 왔다. 이때 나는 UC 샌디에고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배워봐야겠다고 느끼면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찾아보았지만 사실 명상을 배워서 도대체 어찌자는 건지 구체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하지만 당장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멈춰지지 않았다. 마음 가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페이스북에서 UC 샌디에고대학교 부설명상센터에서 베트남에서 프로그램을 연다는 안내글을 발견했다. 그것도 2주 후였다. 비용도 너무 저렴했다. 믿지 못할 정도였다.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그 날 새벽 나는 비행기 예약을 마치고, 아침에는 호텔예약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있었던 Self-Compassion 트레이닝에 참여하게 되었다.



베트남에서  
Self-Compassion Training에  
참여하던 모습

그렇게 급하게 떠난 베트남에서 나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워크숍 진행은 이러 이  
러해야 한다는 나의 고정관념이 꽃잎처럼 떨어져 나갔다. 베트남에서 느낀 부드러운  
바람은 온갖 이유로 딱딱하게 굳어진 내 어깨를 자연스럽게 풀어 주었다. Meditation  
training만 받은 게 아니라, 심지어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다. 이 코스를 1년 전  
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분은 내가 “그냥 몇 일 전에 폐북에서 읽고 바로 신청해서 왔  
다”고 말하자 내 말이 쉽게 믿겨지지 않는지 묻고 또 물었다. 운이 상당히 좋았구나  
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는 이렇게 기다려서 오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바닥에 퍽~ 올라오고. 감사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Self-Compassion이란 단어의 의미

Self는 “자기 자신,” “Com-compassion”은 ”고통을 함께 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는 것을 배웠다. Self-Compassion은 자신의 고통, 즉 힘든 상황을 스스로 잘 지내기  
위함이라는 뜻이었다. 이번 트레이닝은 이 스킬을 익히기 위한 시간이었다. 커리어  
전환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에게는 뿌리가 되는 소중한 개념이었다.

잠을 못 이루고 방황하던 수많은 밤들이 무색하게, 베트남에서의 밤들은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옆치락 뒤치락하는 내 감정을 잘 살피고 챙길  
수 있는 스킬을 내가 갖게 되면서 “감정지능 EQ”에 더욱 관심이 끌렸다. 오프라인 교  
육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감성지능 EQ 트레이닝을 계속 참여했다.

그렇다고 “이걸 배우면, 뭘 해야지,” “무엇이 되어야지”라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트  
레이닝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단 살고 보자, 일단 내 마음부터 챙기자”  
는 간절함으로 트레이닝을 찾았다. 내 마음이 쏠리는 방향에, 내 눈과 손도 저항 없이  
따라가도록 나는 내게 자연스러움을 허락했다.

이 시간은 우리 문화에서 감정을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지도 살피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내 감정을 살피고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거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신뢰에서 가능한 것이다. 내가 화를 내면, 눈물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어 내 감정을 끼워 맞추다면, 그건 건강한 것일까? 우리는 나보다도 누구를 먼저 생각하도록 교육 받았던 것일까? 나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런 교육은 과연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런 고민과 실천의 반복 속에서, 어느덧 나는 EQ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추게 되었다. 사람들이 감정을 잘 살피고, 행복을 실현하게 하는 스킬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Practitioner 트레이닝까지도 수료하게 되었다.



In recognition of successful completion of over 170 hour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Daeyoung Kim has earned Six Seconds®

## EQ Practitioner Certification

And is hereby licensed to use the Six Seconds methods and tools associated with this training.

Joshua Freedman, CEO, Six Seconds  
06 Jun, 2020

This certification is governed by the terms of the current license agreement:  
Officials certifications status is updated monthly on [dsec.org/map](https://dsec.org/map)  
ICF accredited 22 Coach CEUs (7 Core, 15 Resource Development Hours)



글로벌 감정지능기관인  
Six Seconds에서  
Practitioner 과정 수료

온라인 연수는 시간대 Time Zone이 같은 APAC지역에서 들어 온 동료들과 함께 받았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Zoom 트레이닝으로 3일 동안의 연수여서 모두가 스킬을 제대로 익힐 수 있을까를 걱정했다. 6월 마지막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 일요일 오후 5시까지 꼬박 사흘을 Zoom으로 함께 웃고, 울며 교육을 받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영국, 한국에서 참여자들이 동시간에 만나다 보니, 석양이 지는 시간도 다 다르고, 아침을 맞이하는 시간도 달랐다.



EQ Practitioner 과정을 함께 수료한 APAC 지역 동료들

이 교육에 참석했던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 참석자들간에 끈끈한 연대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는 행운이었다.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비대면이었는데 말이다! 나는 늘 아시아인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연수 과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료들을 한꺼번에 얻게 되었다! 개인적인 감정기능에 대한 관심이 어느듯 자연스럽게 일로 연결이 되었다. 더구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친구이자 동료, 나아가 가족 같은 인간관계로까지 발전이 되다니. 감사했다.

## 변신적 코칭 Transformational Coaching이 뭐길래?

EQ Practitioner 과정을 수료하는 동시에 나는 변신적 코칭 Transformational Coaching을 받게 되었다. 사실 그 시작에는 태평양과 같은 망망대해를 과연 내가 건너갈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지, 어떻게 내 에너지를 충전하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지 아무 것도 확실한 것이 없었다. 다만 내가 나를 찾아가는 그 기쁨의 순간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감정기복이 심했고, 코칭이 필요했고, 내 감정을 다 펼쳐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 내가 이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코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다 펼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코칭도 전세계적으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우리 주변에서 들어 보아서 익숙한 이름들은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 중역 코칭 등이다. 내가 배운 코칭은 Transformational Coaching 변신적 코칭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사람들이 진정 자신이 원하지만, 그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마음 속 깊은 곳의 동기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코칭을 통해 미처 자기 자신도 전혀 몰랐던 무엇인가를 찾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이다.

사실 커리어 전환을 시도할 때, 코치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품긴 했었다.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을 찾아내고 진정 자신의 빛깔대로 사는 것을 도와주는데 코칭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 보았다. 물론 내가 가 본 적이 없는 길이어서 아직 확인 되지 않은 실험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내가 그 과정을 먼저 하나씩 다 겪은 셈이다. 실제로 얼마나 이 도움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스스로 겪으면서 비로소 코치가 되고 싶다는 바람은 단순한 꿈에서 소망으로 한 단계 더 강렬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코치가 되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과연 9개월이나 되는 코칭 트레이닝을 무사히 해 낼 수 있을까? 매주 새벽마다 온라인 과정을 참여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트레이닝 과정은 어찌 어찌 해 낸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코치가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도 문제였다. 교육비는 내게는 숨을 멎치게 할 정도로 높았다. 더구나 9개월 동안 오프라인 트레이닝이 6회가 있었고, 나는 LA까지 날아가서 참석을 해야 했다. 9개월 동안 6번이나 왕복 항공료와 체제비를 낸다? 이것도 크게 부담이 되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할지도 망막하였다.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그러다가 깨달았다. 이렇게까지 망설인다는 것은 “내가 몹시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 **코치가 되고 싶은 마음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들이자로 마음을 굳혔다.**

교육비를 어떻게 해결해봐야 했다. “장학금제도”가 있었지만, 제3세계에서 오는 지원자들을 우선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렇게 귀한 돈을 한국에서 가는 내가 받

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 나는 다시 망설였다. 분명 나보다 이 기회가 더 중요한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나는 절박했고 나에게 내가 기회를 주고 싶었다. 무엇이든 시도해 보는 것은 내 몫이고, 붙고 안 붙고는 하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도움을 받게 되면 꼭 값으리라 생각했다.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미국식 장학금 제도도 처음 경험해 보았다. 장학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상한선만 정해져 있었고, 지원자들이 필요한 만큼 써 넣도록 되어 있었다. 어찌나. 얼마를 쓸까. 적게 쓰는 것이 장학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구하지? 신청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액수를 적었다. 우주가 나의 속삭임을 들었나 보다. 요청한 만큼 장학금이 결정되었다.



9개월 동안 6번, 인천과 LA를 오가는  
“통학”을 결심했다.

이렇게 시작한 코칭 프로그램은 9개월 동안 내내 나에게 기쁨과 좌절을 한꺼번에 안겨 주었다. 함께 트레이닝을 받는 동료들이 살고 있는 삶은 ‘체인지 메이커’들의 그것이라 들을 때 마다 감동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단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깊었다. 매주 목요일 새벽 1시에 있었던 온라인 수업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녹록치 않았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도 아니고, 시간이 쌓일수록 자신감이 생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동료들과 실습 코칭 Peer coaching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는 아지랑이처럼 “신기하구나, 이 스킬을 제대로 익힌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데..”라는 생각과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불확실한 오늘을 걷고 있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은 크게 품었다.

무슨 일을 하던지 먼저 이 길을 걸어본 선배가 있다는 것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코치의 길을 걸어가 보도록 추천해 준 선배 코치는 자기에게 좋았던 경험들을 미리 그리고 자주 자주 나누어 주었고 그런 선배가 있었던 나는 운이 좋았다.

그 중 하나가 국제코칭협회 International Coaching Federation에서 발급하는 국제공인코치자격증이였다. 글로벌 코칭 마켓에서 가장 공신력을 받는 이 자격증은 100시간이란 실제 코칭 시간을 증명해야 했다. 이 시간을 모으는 것이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선배는 미리 미리 계획하라고 알려 주었다. 나와 같이 코칭 연수를 받은 동료들이 모두 이 자격증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난 다른 동료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코칭 시간을 처음부터 계획하게 되었다.

코칭을 하면서 처음으로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때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자책을 하면서 힘들어 했던 때가 불과 며칠 전인 것 같다.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면 연수생 신분인데 코칭을 제공한다는 것이 무척 주저되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국제공인 코치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실제 코칭 시간을 모아야했다. 연수가 중반을 넘기면서는 마음이 급해져서 정말 부지런히 코칭을 했었다. 연수생이라는 것을 밝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으로 코칭을 했다. 커리어 체인지를 해서까지 하고 싶은 새로운 영역이었다. 단순히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간 채움이 아니었다. 한 시간 한시

간 나는 내 자신에게 당당하고 싶었다. 코칭 실력이 부족한 나에게 코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Clients들이 정말 고마웠다.

## **클라이언트와 어떤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지,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달랐다**

나는 나 스스로를 미국 문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해가 깊은 사람 중의 한명으로 나를 생각했었다. 하지만 코칭 연수를 받으면서 나는 한국과 미국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더 뚜렷하게 느꼈고, 그 차이를 채우기 위해 힘이 들었었다. 그 중 문화적 충격이 가장 컸던 것은 클라이언트들을 대하는 코치의 마음가짐이다. 한국 식에서는 코치가 클라이언트들에게 뭔가 해결책을 줄 것이라고 문화적으로 기대를 한다. 코치도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려고 마음을 쓴다. 그러나 미국 문화는 달랐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가 더 잘 알아. 코치가 해결책을 찾아 주려고 하서는 곤란해”라는 말을 연수를 처음 받을 때 자주 들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고민했었다. 클라이언트가 “resourceful 이미 자기안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기분좋은 의미 있는 전환이었고 중요한 전환이기도 했다.

##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9개월간의 트레이닝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었다. 연수 과정이 힘들었으면 마무리는 조금이라도 편하면 좋으려만.... 코칭연수는 실제로 코칭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보내서 평가를 받고, 또 9개월 간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하는 졸업시험도 있었다. 평가 기준을 꼼꼼히 설정해 놓은 표를 보고서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과연 이걸 통과해낼 수 있을까?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고생은 어찌지? 가족들은 또 어떻게 보나?

답지를 펼치고 코칭의 상황으로 몰입해 들어갔다. 문제가 내 머리로 가슴으로 이해

가 되면서 연수를 받을 때 함께 울고 웃었던 얼굴들, Zoom에서 느끼던 분위기, LA에서 들리던 새 소리, 물소리, 달콤한 간식들의 냄새와 맛 등 모든 것들이 떠올라 왔다.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을 시험을 치는 내내 조절해야 했다.

## Competence to Confidence 숙달을 하는 시간을 거쳐 자신감으로

졸업 시험지 답안을 작성하면서 What if? What if? 만약 내가? 만약 내가? 라는 가정을 여러 차례 설정하게 되었다. 코칭 이론만 배우고 실제 코칭은 그렇게 부지런히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이 시험지에 답을 달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험 문제는 경험이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론을 적용한 코칭 사례를 소개할 수 있었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천만다행이다. 자격증이라는 한 개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100번 이상 코칭을 경험했더니, 자격증뿐만 아니라 코칭 자체가 되어 있었다. Competence to Confidence! 어떤 일을 자꾸 반복해서 함으로써 능숙한 단계가 되고(Competence), 이 Competence 숙달의 경지에서 비로소 Confidence 자신감을 찾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는 동안 Self-Compassion 내가 나를 챙기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했다. 나는 내 마음에 미흡함이 남으면 안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감동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늘 있곤 했었다. 그러나 나를 스스로 책망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며 클라이언트들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코칭은 파트너십이다. 함께 목표를 향해 가려면, 서로에게 신뢰를 갖고, 긍정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마인드셋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내가 먼저 이상적인 모습, 즉 Best Version of Myself가 되어서 생활하는 것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유럽에서 진행되는 여성리더십트레이닝을 소개받게 되면서 나의 자신감은 더욱 견고해졌다. 역시 처음부터 확신이 든 것도, 강하게 끌린 것도 아니었다. 추천해주는 분이 경험한 사례를 듣고 직관적으로 등록을 했다. 여성주의적 리더십이 이렇게 잘 표현되는 교육은 처음이었다. 다만 시간이 문제였다. 기존에 참여하던 코칭 수업

은 목요일 새벽 1시, 이 여성주의적 리더십 수업은 수요일과 금요일 새벽 2시에 있었다.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고 싶었기 때문에 낮밤이 바뀌고, 쪽잠을 자면서도 컨디션을 유지해야 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성주의적 리더십 트레이닝을 유럽 여성들에게서 배우다  
\*사진 출처: Christina@wocintechat.com from Unsplash

## **The Best Version of Myself 최고의 모습인 나로 산다**

이것이 지난 2년간의 나의 모습이다. 2018년 10월 말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나는 내가 꿈꾸던 모습, 그 이상으로 변신하고 있다. 난생 처음으로 “the Best Version of Myself”으로 매 순간 살고 싶어 한다. 이 일은 내 50년 인생에서 가장 신기한 일로 꼽힐만한 일이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나는 왜 그렇게 마음이 쓰였던 걸까? 그러면서도 왜 나는 내가 어느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걸까?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갈등을 초래할 때 그냥 내가 모른 척 쳐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는 나를 바로 낮추는 쪽을 선택해왔었다. 왜였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어린 시절 ‘누나’인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은 줄곧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장남인 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딸인 나에 대한 인정이 용납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린 나의 마음에 나로 인해 가족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에 대한 죄책감들이 뒤엉키고 설키면서 나는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두더라도 그냥 나 한명만 참고 부족하다고 얼른 거짓 인정을 하고, 침묵 속으로 나를 숨기면 모두가 괜찮아지는 것들을 꾸준히 보아왔다. 결국 나는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준선을 만들며 살아온 것이다.

이러한 내 모습은 커리어를 쌓는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곤 했다. 나는 내가 좋아서 했을 뿐인데 실적이 눈에 띄게 좋을 경우, 나는 그것이 행복하기 보다는 두려웠다. 나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부족해 보이면 어찌지? 업무로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면 그래서 나는 나를 바로 굽혔다. 내가 이룬 성과를 보잘 것 없게 만들거나 부정하면서..... 이제야 나는 내면에서부터 쌓여져온 가부장으로 범벅된 나의 유년시절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 레거시 프로젝트 Legacy Project를 드러내다

2020년 내 생일날은 예전에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올해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레거시 프로젝트 Legacy Project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멤버들이 함께했고, 그들 모두가 내가 태어났던 순간을 함께 기억했고 축하해주었다.

그들은 “너의 야망을 축복한다. 꼭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빛이야” 등등 감동이 듬뿍 담긴 메시지들을 보내 주었는데 나는 차마 이 메시지들을 읽을 수가 없었다. 너무 감동받아서? 물론 감동받은 것도 있었지만 내가 또 도드라지게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이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엔 멈추어 서서 생각에 잠겼다. 왜일까? 왜 나는 이런 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어 하지? 무조건적인 사랑·지지·응원의 힘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지금껏 배워온 것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나는 순간 나의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였구나. 그래.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지기를 바랐던 내 엄마. 그 분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서 나는 나를 보이지 않게 늘 노력했던 거야. 본능에 가깝게 만들어진 그 프레임. 나는 내 존엄성과 내 본능을 안간힘을 써서 없애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 그 분이 내 존재를 받아주리라고 생각했던 거야. 오우 마이 갓. 그거였구나.”

어린 시절을 직면하게 되면서 나는 지금의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시간 숨어야만 했던 어린 나에게 연민과 분노를 느꼈다. 지금까지 살면서 존재를 낮추거나 숨겼던 시간들을 회복해야겠다는 의식이 로켓처럼 나를 부추겼다. 최고가 되겠다. 아니, 나는 원래 최고였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최고인 존재이다. 다른 사람들의, 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굳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자. 내 중심에는 이제 내가 있을 뿐이다.



“What's the Big idea? 내 인생의 비전 보드

## 나에게 전환이란?

내가 나로 태어나는 순간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최고의 작품으로 되는 과정이다. 우리 모두는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직업을 통해 타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또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나는 내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배우자와 자녀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내 본분이라 생각하고 산다. 내 이웃들에게도 그들이 더 즐거울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고민한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가장 찬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갖고 태어난 모든 잠재력을 남김없이 찾아내고 사회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들? 이웃들? 직장? 누구지? 나는 나를 우선적으로 챙기고 내가 최고의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고, 최고의 나를 향해 내가 야망을 품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허락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게 ‘전환’은 ‘나’이고 내가 ‘나’로 태어나는 새로운 순간이다.

페이스북의 프사를 바꾸었다. 화려한 나비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 이미지다. 본격적인 내 변신은 이미 예정되었다. 나는 나비다.

# 생존과 공존의 경계에서 : 40대 여성 문화기획자의 삶은 로드무비를 닮았다

프리랜서 문화기획·연구 폴리

2020.6.24. <생존과 공존의 경계에서> 강의 진행

## 길의 중간

네이버 본사인 ‘그린팩토리’에서 근무하고 있던 30대 중반이 생각한다. ‘그린팩토리’는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혁신적인 건물로 알려져 있고, 건물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홍대 어디 즈음 있을 법한 세련된 카페처럼 보였다. 누군가들은 부러워할 만한 근무지였고 실제로도 근무했다.



그린팩토리의 외관은 그린색이다.  
해가 비치면 내부의 그린색 블라인드가 저절로 닫히면서 유리를 통해 보는 색이 오묘해진다.

\*그린팩토리 외관 - 출처 : NHN



내가 다니던 기간에 그린팩토리는 사원을 위한 카페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고, 총마다 갖춰진 독립된 회의실과 화장실의 디자인도 카페 못지않은 세련됨을 자랑했었다.

\*그린팩토리 내부 - 출처 : designdb

그렇지만, 창의적으로 보이는 환경과 달리 거대해진 회사는 회사 본연의 목적에 따라 정교하고 집요하게 움직이기 마련이다. 중앙집중적이고 관료화된 조직 구조, 기업의 수익 창출이 가장 우선되는 그곳에서 나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

그 시절, 그 어떤 날의 모습이 기억에 선연히 남아있다. 건물 꼭대기층 레스토랑에 앉아 고속도로를 하염없이 흘러 다니는 수많은 자동차를 내려다보고 있던 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땅은 너무 멀어 보였고, 저 많은 차주인들은 대체 어디로 가는가 어둡고 멜랑콜리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현실을 살고 있지 않은 날들이 이어지는 듯한 무중력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퇴사를 하였다.

당시에 페이스북에 썼던 일기들도 살펴보면 대체로 우울하고 가라앉아있다. 지금 와 되돌아보면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 같다.

네이버 건물의 신기한 거 두 가지. 조도와 엘리베이터. 건물 안에 있으면 시간을 식별하기 아주 어렵다. 일정 정도의 조도가 항상 유지되고 있다. 뭐랄까, 사이버스페이스 속에 있는 것 같은 조도이다. 엘리베이터는 내가 탈 층수는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탈 엘리베이터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

- 2011년 3월 9일 수요일

좌절을 준 건 회사가 아니야. 좌절은 회사 경험을 통해 내가 태어나고자란 곳의 평균적인 삶에서 나는 얼마나 멀리 벗어나 와버렸나를 알게된 데 있어. 또한 평균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를 알게 된 것에도 있지. 어정쩡한 시기에 어정쩡한 소시민의 삶을 선택하겠다는 결정이 일어난 것은 지나간 시절에 내가 나의 사회적 목표를 뚜렷이 하지 못했음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소시민적 결정으로 나를 이끈 생각은 근 몇 년 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처음엔 일상 속에 배어있는 나 자신의 중산층적 환타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는 훨씬 엘리트 공동체 내부에 깊숙하게 자리잡고 길러진 사람이란 걸 느끼게 되면서 운동의 법칙처럼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삶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회의하게 되었어. 이렇게 서로를 눈치보며 사소한 감정의 사슬 속으로, 무한히 복잡한 책임 속으로 엮어매는 관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개의 정의로운 이데올로기의 관념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를 버티고 상상할 힘이 비축되어 있지 않다는 걸 느껴.

나는 나의 무능을 생각해. 나는 잘 하던 것들을 버렸고, 못 하는 것들을 배우고 있고, 명징하게 출현하는 욕구 앞에서 괴롭고, 이 모든 중년의 사춘기적 증상 앞에서 우울증을 다스릴 수 있었던 과거의 몇 가지 방법들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는 중이야.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아니겠으나, 노예화되는 상태는 피해야겠기에 아등바등하는 중인데, 이것을 넘어서겠지— 라고 생각할 만한 용기가 없는 것이, 그렇게 용기를 서로 복돋울 관계가 없는 것이, 한 줌의 언어로 된 위로가 아니라 결정과 책임으로 등 맞댄 이웃 관계가 없는 것이 좌절의 기분을 만들고 있어. 여하튼. 지금은 그렇네.

- 2011년 6월 8일

퇴근 버스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차를 잘못타서 집 반대방향으로 갔다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밤공기에서 겨울 냄새가 지독하게 났다. 나꼼수 미친 네 남자의 잡설을 들으면서 길 걸어 집안에 당도. 그제서야 뇌세포를 덮고 있던 유량의 충동과 외로움과 침묵이 조금 견어내졌다. ... 본래는 내향적인 빨갱이가 시장 자유주의 한 복판에서 산다는 것. 무엇을 결정해도 그게 그것이기 때문에 찌질해진다던 00의 말을 곱씹어 본다.

- 2011년 11월 15일 화요일

업무가 새벽 세시 반에 끝났다. 오전 반차를 냈다. 자야한다. 한 주가 지나갈수록 업무 시간이 더욱 길어진다는 느낌인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 2011년 12월 8일 목요일

놀지 말라고 함. 팀원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고 함. 남을 좋게 평가하지 말라고 함. 서비스 대신 나의 경쟁력에 대해 깊이 고민하라고함. - 어제 들은 말 정리.

- 2011년 12월 13일 화요일

내 타임라인을 훑다보니, 한국에서 사는 것이 재밌거나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다.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일지 모르겠다. 이 땅에서 행복하려면 절대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불행이 있다면 불행이 없는 척 할 게 아니라, 불행에서 해방되기 위한 삶을 기획해야만 한다. 시간이 흘러 갈수록 분명해지는 건 꿈수는 진실 앞에서 결국, 무력하다는 점이다. 꿈수로는 바꿀 수 없는 거대한 결과라는 게 있다. 학력/성과에 미친 세상이 만들결과나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을 때 생길 결과처럼. 이런 것들은 원인 해결 없이 지속적으로 갈등하다간 헤어지게 되는 것처럼 필연이고, 한 사람의 삶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만큼 분명한 결과다.

- 2011년 12월 22일 목요일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삶의 모든 국면에서 생경스러움이 생길 때마다 그게 뭐지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주변인이 시키는 대로 잘 살아왔던 거 같다. 뭐, 서울 가라면 서울 가고, 회사 가라면 회사 가고, 대학원 가라면 대학원 가고, 고양이를 집어다 놓으면 대신 키우고, 누군가 집이 없다고 하면 별 생각없이 같이 살고, 누가 영화 갖다주면 영화 보고, 음악갖다 주면 음악 듣고, 사진 자랑하면 사진 봐주고, 책 읽으라면 읽고 ... 그런 식이었는데. 나의 잡다한 문화적 소양과 학벌은 모두 이런 식으로 쌓인 것이다. 즉, 나는 "남"으로 이루어진 구성물이다. 언제나 텅 빈 그릇 같은 점이 나의 장점(흡수력)이었고, 또 단점(열망 부재)이었다. 그러다가, 작년 올해로 넘어오면서 차츰 단단한 것이 생기고 있는데 - 이 알맹이가 타협불가능한 "나"라는 것이 느껴진다. 이 "나"는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존재의 크기와 무게에 비해 형편없이 촌스럽다. 게다가 게걸스럽게 만족되길 원한다. 이 "나"는 "인식욕", "내향적 지향성" 과 강렬한 연관이 있는데, 이런 놈이 풀려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사랑받을 수 있을까와 같은 두려움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던 것이다. 이 놈을 어찌할까,가 정말로 내 인생의 화두다.

- 2012년 1월 4일 수요일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사랑을 하고 느지막히 일어나서 강렬한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걸 보고 싶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물들과 꽃들과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얼핏 교회에서 들었던 천국은 흐릿한 기억에 위와 같은 식으로 묘사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군. 그게 애상의 감수성인 듯하군. 이런 생각이 오늘 든다.

- 2012년 1월 16일 월요일

한 4-5년 전 쯤 나는 내가 뻗속깊이 중산층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설날 집에서 올라오다가 뻗속깊이 내가 자유주의자인 게 아닐까, 의심하는 중이다. 여기서 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에 붙어있는 그 자유이다. - 즉, 경쟁을 전제로 한 자유와 차별을 긍정하는 주의다.

-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공부하고 일한다는 핑계로 삶을 지탱하는 방법을 배울 길이 없었는데 - 내 부모에게서 주입된 것이다 - 살림보다 공부, 공부보다 돈 버는 일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는. (= 전략적으로 매니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자존감과 살림실력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를 느끼게 된다. 이런 것들이 내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들이다.

-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 길의 처음

모든 길에는 '출발지'가 있다.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제도권 내에서 안정되지 못하고 로드무비를 찍듯 방향했던 그 기원, 잊을 수 없는 광경.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계열사의 벤처 기업에 입사했었다. 그 회사는 나를 창의적 인재를 뽑겠다고 머리 노랑게 염색하고 대학 시절 작업했던 다양한 프로젝트 기록을 들고 간 나를 흥미로워하였다. 어쩌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졌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었던 그 회사에서 일이 생긴다.

입사한 지 한달 즈음인가 회사 투자자가 온다고 했다. 이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투자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룸싸롱으로 모두 이동했다. 기업 임원들은 잠깐 여직원들이 동행해야 할지 고민하더니 이젠 시절이 달라졌으니 깔끔하게 술만 마시고 오자 했다. 술이 취하기 전엔 괜찮았다. 그러나 투자자는 취기가 오르자 슬금슬금 신입 여직원들에게 자신의 옆자리로 오라고 추근거리기 시작하였다.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벌어졌다. 회사 직원들끼리 신입 여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눈치를 서로 주고받더니 신입 남직원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갔고 상의를 탈의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서열의 바닥에 위치한 남자들은 맡겨진 몫을 알았다. 스스로 알몸을 제물로 내던져 그 자리의 질서를 완성한 것이다. 남직원이라고 여직원보다 과연 덜 수치스러웠을 것인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

스러웠고 나는 슬펐다.

그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퇴사하였다. 아니다,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

남직원들의 상의 탈의 춤 사건은 나의 20대를 지배하며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 사회에서 여성이 과연 회사를 다닐 수 있는지 질문하게 하였다.

때문에, 20대의 나는 취업을 위해 애쓰는 대신 또래집단과 어울리며 이런저런 일과 활동이 있는 곳을 기웃거리며 살았다. 한때는 선배 회사의 심리검사 게임 개발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기도 했었고, 홍대 앞에서 동료 다섯과 문화예술 단체 비슷한 것을 만들어 잡다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도 했었다. 운이 좋아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입사하기도 했었지만, 그때도 매일 ‘안마쿠폰’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성폭력특별법을 욕하면서 우애를 다지는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홍일점으로 버티다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당시 팀장이 나의 선배이자 거래를 트려던 회사 대표와 함께 나를 ‘공동의 여동생’처럼 다루었던 일도 생각이 난다.

20대 때는 알지 못했다. 방향은 강제되었고, 그 이유는 단지 일하려는 여성이었기 때문이란 것을. 마흔 중반을 바라보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선명하게 보인다. 그때는 내가 사회 일반의 기준에 맞지 않아 조직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다.

어쨌든, 나는 계속 생존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안정적 일자리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30대엔 2인 체제의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별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체계적 지향, 커리어의 관리를 생각할 여지는 별로 없었다. 주어진다면 닥치는 대로 받았고, 일하는 몸이 만들어졌다.

어찌되었든, 시간은 흐르고 어떤 경험이든 누적되면 경력이 된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파편적이고 불연속적인 방향의 집적이 어느 순간 폭넓은 분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전환되었고 지금 내 활동의 범위를 규정지었다.

다음 그림은 길팔필파하던 결음이 어떤 커리어의 형태로 수렴하는 내 인생의 궤적을 그린 것이다.



문화적인 환경

- 부모 모두 교사이고 아버지에서 둘째식 음반 수집가 어머니는 공예를 하시는 문화적 분위기
- 시애틀이래버니 3년 거주하며 AKA 등 미국 문화 영향
- 교향곡 작곡 소리에서 하루 5월째 책 대어해 읽고 소설 쓰기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포레 그룹 경험

- 중학교 때 처음 만화대사, 이응, 신영호, 김진, 이은혜, 김경옥 등의 만화회화자들 경험
- 고등학교 때 헌법 해적 만화잡지를 출판하고 학자 발행 판매
- 대학 1년째 학생동아리(연말회) 가입하여 활동
-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대학원 석사수 받으면서 인문학 대학원의 사회학 전공

학생운동권이 저물고 인디 문화의 중심권으로

- 1996년 연세대학교 사범로 학내 운동권이 거의 없어져서 97년부터 현대 사회 계층 중심으로 인디 문화 활동가가 분자졌으며 장민 시가 대표 인물 (신대진, 최남태, 최지우, 프리마켓 등)
- 96년 연세대 학생회 지도부가 인디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대학 동아리 문화 연구회 형성
- 96년 난징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wonderland'에서 운영했던 청년 기획자 그룹인 <청안문화네트워크> 활동들림

졸업 후 일단 IT 계열로 취업

- IT 용어로 취직하기 쉬웠음
- 처음으로 여성혐오적인 직장 문화가 있어 대안하며 계속 직장인일 수 있겠지 고민하며 퇴사
- 이후 도깨비들 함께 음악에 참여하면서 인디 문화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게 되지만 재발명으로 취업



**첫 번째 취업부터 문화정책 일을 수주하기 시작**

- 2006년 문화정책팀 연구모임책
- 2006년 문화정책팀 연구모임책 연구 시작



**세 번째 취업에서 사회적 기업계와 관계망 형성**

- 한국사회적기업 육성사업팀
- 육성사업 신청
- 예술인복지재단
- 일몰이와 관계망 형성
- 관수예술계와 관계망 형성



**네이버를 마지막으로 직장생활 접고 문화예술계로 본격 이직**

- 최근 시점으로 예술인복지에 관심
- 예술인복지재단이 마침 신뢰되어 행진 만드는 일을 시작

현재 활동 영역

- 성과 평가 연구
- 생활문화, 지역문화, 관련 활동
- 문화예술교육 전문활동
- 커뮤니티 극장, 커뮤니티 밴드 등 커뮤니티와 예술의 결합 지점
- 무용계, 정경 등을 위한 오페라, 드류 활동
- 문화예술기관 시스템 및 아카이빙 사이트 기획

그리고 이 그림을 키워드로 설명하면 <탈탈한 언니들 4050>에 초대받았을 때 제출한 키워드가 된다.

- #구멍가게창업만3번
- #30대네이버기획자
- #40대독립문화기획자
- #하기싫은걸안해야커리어파워가생긴다
- #미투\_일터에서도나는여성이다
- #불확실성을응시하는힘

##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길을 헤매며, 나처럼 ‘성공한 인생’ 즉, 정상 궤도를 따라갈 수 없어 비포장도로를 걷거나 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나의 문화적 고향, <하자센터>. 하자센터는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별명이다. 하자센터는 IMF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1999년 12월 설립되었다.



\*하자센터 외부 - 출처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1999 — “하고 싶은 일 하며 먹고 살자”

---

## 청소년 문화작업장

“하고 싶은 일 하며 먹고 살자”

청소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며, 하자에는 작업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웹, 영상, 음악, 디자인, 시민작업장을 주제로 한 5개의 스튜디오가 생겨났습니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에너지와 끼를 맘껏 발산하며 문화작업자로, 청소년 기획자로 활동했습니다. 장인들과 함께 도제식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는, 일-놀이-자율의 청소년 문화작업장이었지요.

## 키워드

판독 / 죽독, (문화) 작업장, 관민산학, 온라인, 인턴십 / 창업 / 알바, 자기주도학습, 스스로 묻주는 나무, 이름짓기, 스토리텔링, 하자 일곱가지 약속, 다양성, 하자문화, 프로젝트, 일, 놀이, 자율

## 외부환경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IMF, 학급붕괴, 위기 청소년

\*하자센터 홈페이지 소개내용

하자센터는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선진적인 학습공간 디자인을 따랐다. 방음 시설이 갖춰진 음악실, 전면 거울이 설치된 마루, 이런저런 발표나 공연을 위한 강당, 옥상 텃밭 등이 있었고 공간은 늘 개방되어 있었다. 여러 모로 한국의 기존 질서와는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하자센터에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드나들었다. 특히, 자퇴생들이 하자센터를 아지트 삼아 홍대 권역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과 작업을 함께 하였다. 아이들은 밤을 새워 작업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검정고시 준비도 하면서 하자센터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하자센터는 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돌리는 공장 같았다.

그 외에도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대학생들,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인문학자들이 섞여 있었고, 나중에 IT 업계로 진출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하자센터는 늘 동시대와 호흡하기 위해 애쓰면서 공간을 바꿔왔다. 설립시 예술 작업장 위주이던 모습에서 지금은 마을 도서관, 카페, 실험실과 공방 등을 갖춘 구성으로 변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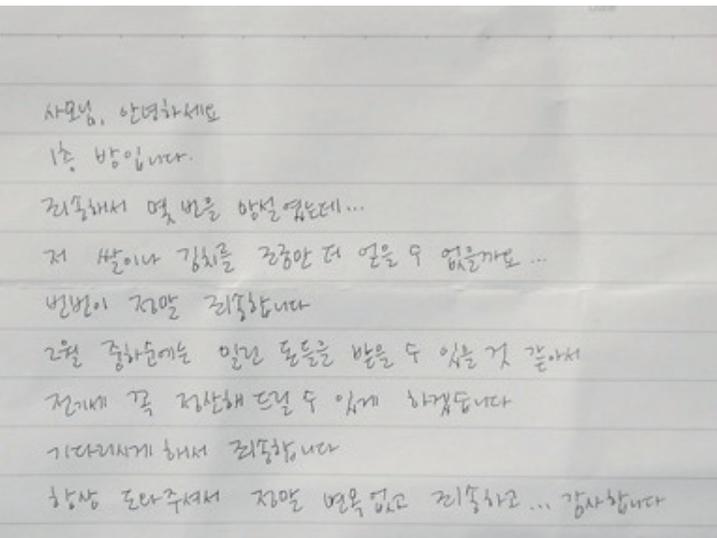
\*요즘 하자센터 - 출처 : haja.net



하자센터는 지금 문화기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산들을 내게 주었다.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하자센터는 수없이 많은 혁신을 잉태했다. 그러나 대학생이던 내가 야심찬 미래를 계획하고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자는 내게 갈 곳 없는 청소년을 받아주는 ‘제도의 바깥’으로 느껴졌었다.

20대 초반, 나를 스쳐갔던 하자센터의 사람들은 어딘가 바람 냄새가 났고, 여태 바람 냄새가 나는 삶을 살고 있다. 나도 그들처럼 늘 길 위의 방랑자 같은 기분으로 살았다.

30대 중반까지 여러 회사를 떠돌다 네이버를 마지막으로 영리회사를 그만 다녀야겠다고 결단한 후에는 문화예술계에서 단단한 결속감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졌다. 당시엔 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이 ‘굶어 죽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일명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예술인의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때다. 또한, 90년대 후반 학번이 예술계의 허리 세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동인 형태가 아닌 안전한 계약 관계로 맺어진 회사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 조금씩 생길 때이다.



최고은 유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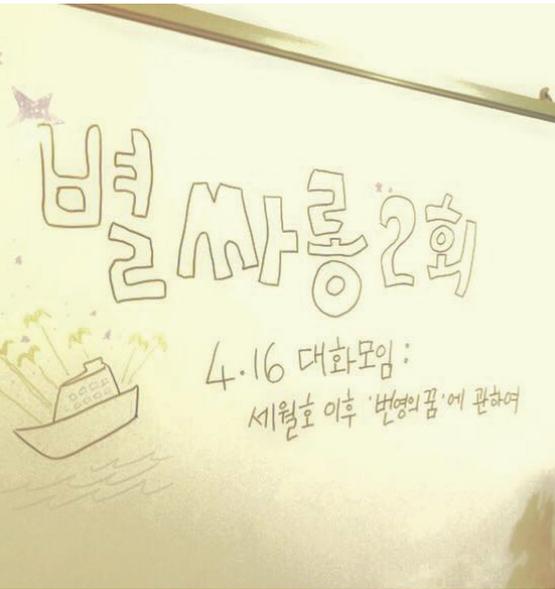
별일사무소도 정규직으로 평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꿈으로 시작하였다. 예술인복지재단의 뉴스레터를 함께 만들었던 편집진중 다섯 명이 모여 유한회사로 창립하고 3년 간 함께 하였다. 우리는 여러사업을 용역으로 받아하면서 수익을 1/n로 나눴다. 사무실을 구할 여력이 되지 않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 응모해 뽑히기도 했고, 자발적 동력을 만들기 위해 대화모임을 열기도 했다.



별싸롱 1회는 창신기지에서 미술치료를 주제로 별일사무소에 우호적인 손님들을 초대해 워크숍으로 진행하였다.

\*별일사무소 별싸롱 1회 - 출처  
: 별일사무소 페이스북





별일싸롱 2회는 세월호 이후 1년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보냈는지 이야기 했고, 참여했던 한 기자는 회사 상황의 답답함에 울기도 하였다.

\*별일사무소 별일싸롱 2회 - 출처  
: 별일사무소 페이스북

어떻게든 정기적인 월급과 4대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첫해에는 오순도순 일했다. 둘째 해에는 사업이 많아진 동시에, 회사의 정체성과 앞으로 갈 길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그리고 셋째 해에는 조금씩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헤어지기로 하였고, 별일사무소 법인은 대표가 홀로 운영하는 형태로 남았다.

별일사무소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진 후 가족처럼, 친구처럼 시작한 관계가 부서진 이유에 대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처를 되씹으며 앓았다. 처음에는 분노가 일었지만 이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지점에서 이미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싶었다. 어쩌면 나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모르고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무엇이 상처였을지 어떤 부분은 짐작되지만 아마 내게 말해주지 않은, 짐작하지 못할 잘못도 했을 것이다.

별일사무소에서의 경험으로 나는 프리랜서가 되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함께했던 사람들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해 애썼음에도 조직을 다시 만들 용기는 차마 다시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때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모여 보았고, 그 모임을 제도화 해보았고, 주변의 무수한 지원을 받았던 과정을 후회하

지는 않는다. 지금은 별일사무소의 경험을 대나무가 자라면서 결절이 생기듯 인생의 마디가 하나 생긴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1. 박스를  
틀어주세요!



A-1,2 라고  
적힌 부분이예요!



A-1과 A-2의 가운데 홈을  
위 아래로 끼우세요!



트리 조립 끝! 장식KIT의  
천에 테이프를 붙이세요.



2. 예네도  
틀어주세요!



**품팩스!!**

함께 품팩트리를 꾸며보세요

품팩스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사무공간을 지원받으면서 개발한 제품이다.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된 '구독' 상품으로 처음 기획했으나 아쉽게도 두 번째 박스부터는 생산하지 못했다. 문화예술단체가 제품의 생산을 위해 인프라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별일사무소 '품팩스' - 출처 : 텀블벅

별일사무소에서 맺었던 인연이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2015년 우리는 서울문화재단의 대규모 커뮤니티 댄스 사업인 <서울 댄스프로젝트>를 취재하고 기록집 <춤추는 시민을 기록하다>를 구성·제작했었다.

나는 이때 안무가를 처음 만나 보았다. 글을 쓰거나 디자인 하는 사람, 정책 설계자, 행정가와 주로 일하다 몸을 쓰며 사는 사람과 대화하는 일은 획기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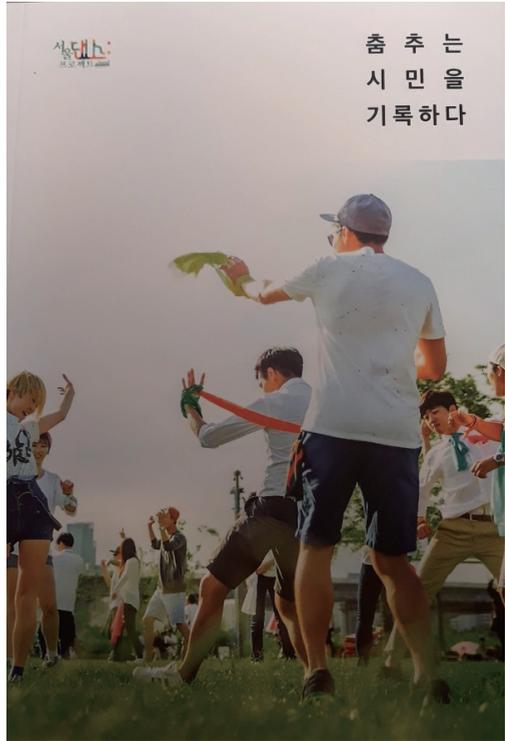
2016년 남산으로 답사를 갔다 산길에 설치된 계단을 한 안무가와 걸어 내려오던 장면이 생각난다. 정확히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안무가란 요리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다. 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몸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똑똑함의 질이 다른 사람들.

<서울댄스프로젝트>에 2년 간 참여하면서 나는 점차 ‘몸’이 나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평생

에 걸쳐 공부 기계로 살면서 늘 공중에 부유하는듯한 기분이었던 이유를, 관념의 바깥으로 탈출하자며 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당시의 충격을 기록한 텍스트는 <춤추는 시민을 기록하다>의 여는 글 ‘왜 기록하는가’에 실려 있다.

서울댄스프로젝트 연구를 위해 기록팀이 1년간 현장을 쫓아다니며 사업의 윤곽을 더듬어 가는 동안 ‘시민에게 춤출 자유가 왜 필요한가?’란 질문이 차츰 부조처럼 떠오



춤추는 시민을 기록하다 표지

르는 경험을 하였다. 춤을 대하는 태도는 이 사회가 몸을 관리하는 방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한국에서 몸은 가려진 주제이다. 사람들은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의 몸을 그대로 직면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한국인의 몸은 쓸모가 있어야 하는 자원으로 스스로 관리하여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고도성장과 개발이 고조되던 시절에 한국인의 몸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면 역할에 부합해야 하며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 시절 남성들에게 몸은 남자의 능력을 증명하고 경쟁하기 위한 도구로 좋은 엔진 오일을 넣는 자동차처럼 보양식을 섭취해줘야 하는 것이었다. 나라는 체력이 국력이라며 일하기 위한 지구력을 몸의 핵심 역량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반면, 여성의 몸은 단정한 옷매무새와 조신한 걸음걸이를 하도록 강제되었다. 어린 시절 고무줄놀이에 열을 올리던 여학생들도 중학교를 가면 교복 치마를 입고 뛰지 말라는 제도 교육의 영향을 받았다. 덕택에 남학교 운동장과 달리 여학교 운동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1990년대를 지나 문화적 소비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몸은 보여주기 위한 아름다움의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헬스장에서 조각 같은 몸을 만들어 인기인이 되는 ‘몸짱’의 시대가 열렸다. 그와 함께 헬스나 다이어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이 삶의 질을 높이는 명목으로 일상 영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사회 분위기가 자유연애와 섹스 어필에 관대해지면서 몸은 마치 자유를 얻은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하드웨어로서의 몸에 대한 관심 영역 바깥으로 탈주하는 움직임은 아니었다. 몸은 여전히 성능 유지를 위해 관리되는 기계, 혹은 좋은 옷과 액세서리처럼 자랑하기 위한 명품 몸매의 위치에 있다.

여기서 잠깐 읽기를 멈추고 내 몸을 한 번 훑어보았으면 한다. 내가 취하는 몸짓을 유심히 응시해 보았으면 한다. 나의 몸짓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어색하지는 않은가? 급히 걷고 있는 걸음새나 침대에 달라붙은 등짝이나 스마트폰에 빠져들 것처럼 휘어진 거북목이나 의식하지 않아도 자판 위의 글자를 찾아 날아다니는 손가락이 낯설지는 않은가? 또는 나의 콧대와 새끼발가락 발톱과 튼실한 허벅지 중 더 쓸모 있는 부위를 가름해서 따질 수 있을까?

실은 내 몸은 그 어느 한 부위만을 떼어내어 어떤 것이 더 은밀하고 더 생산적이고 더 우아한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몸의 금기에 훈육되면서 우리는 몸을 잊게 된다. 오로지 몸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몸이 곧 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몸은 내가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꺾고 도려내어 조합하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하기까지 한다.

몸을 관념이나 정신에 비해 천시하는 습관은 마치 오래 된 가구가 세월에 패인 흔적처럼 남아서 우리의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무용수가 몸‘만’으로 춤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용수들은 마치 글쟁이가 자신의 삶과 존재를 노출하기 위해 언어를 부리듯, 몸으로 자신의 삶을 묘사하고 철학을 하는 이들이다. 무용수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몸의 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표현하는 몸의 언어를 듣고자할 때 획득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몸을 듣고자 함은 나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일처럼 예술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다. 즉 춤일 수밖에 없다. 낯선 나의 몸을 보는 익숙한 나의 시선은 습관적인 자아상과 충돌하여 문득, 몸에 대한 관념에 균열을 낸다. 내 몸을 들듯이 남의 몸을 들으려 하면 서로의 시선의 부딪침 속에서 날 것의 일체감이 생겨난다. 그렇게 움직임은 저절로 집단무가 된다.

## 길의 갈래

여자가 일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제도권이 원하는 전형적인 여성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너무 늦게 알았다.

네이버를 퇴사했을 때, 나는 인생의 큰 전환을 맞았다. 회사를 퇴사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은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이해를 구하고자 한 말은 아니었다. 가족의 기대를 배반하더라도 나 자신에게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한 말이었다. 놀랍게도 엄마는 당황하지 않고 나의 의지를 받아들였다. 엄마는 내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어렵듯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는 엄마였고, 그제서야 나는 가족을 믿지 않았던 쪽이 나임을 깨달았다. 나는 스르르 녹아내렸고 순식간에 불안이 사라졌다. 항상 부풀어있던 위가 편안하고 따스해지는 듯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부로 아무 일이나 시작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일여 년 정도를 슬금슬금 산책하듯 보냈다. 연봉 꽤 주는 네이버를 다녔기 때문에 종잣돈이 쌓인 것이 도움이 되었다. 책을 읽었고, 사람들을 만났다. 마음 끌리는 사건들을 내킬 때까지 파고들었다. 자전거를 타고 동대문 야시장에 가 옷을 도매로 떼는 지역 상인과 일본 상인들을 구경하고 야식을 먹었다. 수영을 하면서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있어 얻게 된 디스크를 다스렸다.

20대에는 한 순간이라도 일이 없으면 안절부절 했다. 때문에 30대 중반까지 한 시도 쉬지 않았다.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까마득하다. 하지만, 네이버 퇴사 후에는 멈춰 있어도 괜찮았다. 언젠간 하고 싶은 일이 내게 다가올 것이란 막연한 확신이 있었다.

어느 날, 예술인복지재단의 친구가 연락을 해왔다.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딱 한 달을 살만한 빠듯한 돈을 받았지만 늘 고민하던 문제를 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생기가 돌았다. 무지막지한 에너지로 팀을 구성하고 디렉팅하였고 별일사무소를 만들었다. 결국 헤어졌지만, 그 헤어짐도 파닥파닥 살아있는 상처였다.

서지현 검사와 김지은 씨가 JTBC에 출현해 미투를 선언했을 때, 과거에 겪었던 부조리한 일의 상당 부분이 내가 여성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직면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심리상담사를 찾아갔고, 과거를 꺼내 하나씩 재해석하고 일 년에 걸쳐 씹어 삼켰다. 미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를 찾았고, 동시에 그 친구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혼자만의 독립된 시간을 가졌다. 마음이 좀 정갈해진 다음엔 서울댄스프로젝트에서 만났던 안무가

들과 유명 안무가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성명서를 내고 방청연대를 진행했다.

나는 아직도 팀을 구성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에 자신이 없다. 나는 아직도 분홍빛으로 행복하지는 않다. 하지만 괜찮다. 방황하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괜찮다. 작든 크든 의미가 없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지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다. 나 자신을 조금 더 빨리 살피고 돌봐야 했다. 길 위에서 만난 탐험가들과 조금 더 빨리 손잡았어야 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다. 다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그러하길 바란다.

다르게 살아갈 길을 만들고, 그 다른 길이 결국엔 평범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 ‘문화기획자’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문화기획자라는 업이 있고 나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길이 문화기획이 되는 삶. 내가 <탈탈한 언니들 4050>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키워드는 #요리의비밀\_인생전환 이었다. 요리를 하듯, 춤을 추듯, 몸으로 말하듯 살겠다는 바람이 생기면 전환의 준비가 된 것이다.

나는 요리를 하지 못한다. 엄마는 공부한다고, 나중에 결혼해 실컷 한다고 요리를 가르쳐주지 않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생존하겠다고 발버둥치며 요리를 탐색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언젠간 능수능란하게 요리하는 시간을 보내리라. 이것이 인생 말년의 꿈이다.

part.2 | **G. community**

“성공”이란 단어에서  
나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금 서 있나?



내 인생의 비전 보드 "Inclusive Society for All"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내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것에만 온 신경을 쏟으며 살았던 우리들. G. Community에서 주고받는 질문은 온통 나에게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모습만 살피는 이 시간은 많은 이들에게 생소했지만, 몰입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G. Community가 무슨 의미인지? 프로그램이 진행된 WLB연구소가 있는 가산동을 영어로 쓸 때 첫 글자, 프로젝트를 기획 때 Global로 가자는 포부를 담아서 G, 여성들 Girls의 임파워먼트가 지향점이기에 G, 성공·행복·번영 등의 인생목표 Goal을 탐색하는 시간이어서 G. G. Community는 내 맘대로 해석하는 자유에서 디자인되었습니다.

5주간의 여정Journey를 함께 하며 한 분 한 분이 보낸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t-코칭이 마치 씨실과 날실처럼 어우러졌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내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작품으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t-코칭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으로 소개하며 시작했는데, 우리들 중 한 명이 “사자가 되는 이미지”로 마무리 피드백을 나눈 순간!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공을 깨달았습니다.

G. Community 멤버님들, 함께해서 감사했어요.

2020년 G. Community를 마치며,  
**김대영**

# 겁쟁이 사자 이야기

은정



영화 <오즈의 마법사>(1939)의 겁쟁이 사자.  
머리에 올린 리본이 깜찍하다.

\*출처: pixabay

‘나는 사자였어, 용기가 부족했을 뿐!’ G. 커뮤니티 5주 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내가 깨달은 나의 정체성이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겁쟁이 사자처럼, 용기가 좀 부족했을 뿐 나는 줄곧 사자였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10년에 한번 꼴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 삶의 기술들이 깡그리 무용해지고, 내 주변을 둘러싼 인간관계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도 바뀌는 때가 있는 것이다.

G.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그 두 번째 지각 변동이 일어난 직후였다. 소중히 여겼던 연인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그 관계가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막 깨닫기 시작했을 때였다. 당시 나는 무력감, 우울, 자포자기, 자괴감 등의 감정에 눌려 있었다. 그래도 생활을 유지해야 하니까 취직을 준비할 목적으로 G.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처음에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내 삶의 전체를 견인해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첫째 주에는 서로 인사를 하고, 커뮤니티 내부의 규칙을 공지 받았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이 공간에서 들은 이야기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 것. 이런 규칙들이 있으니 왠지 더 솔직해지고 싶고 한번 나를 던져보고 싶었다. 나를 던지면 이 공동체가 나를 받쳐줄지, 아니면 떨어지는 대로 놔둘지 결론이 날 것 같았고, 나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각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초면임에도 내가 연인 관계가 깨졌고 그래서 우울한 상태라고 말을 던졌다. 그래서 반응은? 나에게 돌아온 것은 공감과 응원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공동체에서부터 나를 오픈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모임이 지나고 두 번째 주가 돌아오기까지 나는 그 모임에서 받은 응원을 가끔씩 떠올리며 울컥거렸다. 솔직한 이야기를 담담한 척하며 웃음 지었어도 턱턱 목이 메는 것이 느껴졌다. 당장 무언가 변화되는 것은 없었다. 가끔씩 일은 했지만 주로 누워서 시간을 보냈고 바깥에 나가진 않았다.

두 번째 주가 돌아왔을 때, 나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생리통에 앓고 있었다. 2회 차는 내 업적을 성찰하고 소개하는 날이어서 꼭 가고 싶었다. 약이라도 먹고 나갈까 하다가, 코치님이 해준 말씀이 떠올랐다. ‘이 시간에 와서 자도 좋고 뭘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스스로에게 필요한 대로, 하고싶은 대로 뭐든지 하세요!’ 나는 약을 먹고 싶지 않고 쉬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푹 쉬었다.

그리고 일주일을 꼬박 기다려 3회 차 G. 커뮤니티에 나갔다! 2회 차에 어떤 업적들을 나누었고 어떤 충만한 에너지가 가득 찼을까 궁금했다! 그 시간에 빠져서 어땠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EQ 분석 프로그램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링크를 전달받아 나도 해보았다.

총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나 자신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우선, 나 자신의 감정을 내가 얼마

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감정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그러한 나를 세상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발현하는지 중에서 어떤 영역에 강점이 있고 어떤 영역이 약한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예전부터 내가 내 감정을 파악하는게 느리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하지만 내가 직접 행동하기를 선호한다는 건 전혀 몰랐다. 나는 항상 내가 게으르다고 자책하는 반면, 주변 사람들은 막상 내 행보를 전해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 분석결과를 통해서 나는 게으르지 않고, 조금 더 찬찬히 나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걸 더욱 확실히 깨달았다.

그리고 3회 차는 바운더리 설정 워크숍이었다. 종이 한 장에 나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실제로 자원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고, 그 다음 장에는 반대로 나를 주눅 들게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 앞장에 응원과 자원을 보내주는 사람들의 이름을 참 많이 적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 뒤에 나를 주눅 들게 하는 사람의 이름에는 나 자신과 엄마를 적었다. 앞장에 적은 무수히 많은 사람은 날 보며 박수쳐주고 응원의 눈빛을 보내주고 있던 반면, 뒷장에 적은 몇 안 되는 사람들, 특히 나 자신이 이렇게 내 삶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깐 뭔가 불합리하게 느껴졌다. 내가 내 편이 되어 주겠다고 했던 지난날의 다짐이 떠오르며 머쓱해졌다. 나는 나 자신의 창작물을 즐기고 좋아하는 팬이었는데, 좀 더 내가 마음껏 창작하고 날개를 펼칠 수 있게 응원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를 응원해줄 사람들에게 조금 더 기대보자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주말, 나는 우연히 연락이 닿은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술자리를 했다. 실컷 전 애인 욕을 하며 소맥을 적당히 맛있게 말아 먹었다. 노래방에도 가서 노래를 부르며 펄펄 울기도 했다. 다른 사람과 노래방에 가서 그렇게 내 감정을 드러낸 것이 처음이었고, 그렇게 내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매우 뿌듯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웠다. 더욱이 그 날 만난 친구들은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들이었지만 깊은 친밀감이 형성되었던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내 모습을 충분히 받아들여줄 친구들이었고, 나는 그 친구들을 신뢰해서 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냈다. 그 결과 그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개인적으로는 나 스스로 조금 더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데에 자신감을 얻어 더 깊이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



노래방에서 울던 내 모습을 친구가 그려주며 앞으로는 울지 않기를 기원해주었다.

넷째 주 다시 G. 커뮤니티에 모였다. 한 주가 어떻게 지냈냐는 질문에 나는 친구들과 보냈던 시간을 이야기하며 나 스스로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번 한주는 정말 잘 보냈다고 말했다. 코치님은 내가 친구들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기로 한 것은 직관을 쓴 결과이며,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다고 결심했고, 그래서 드러냈다는 것은 마치 달을 내린 것처럼 주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용기가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사실 코치님은 첫째 주부터 나에게 ‘용기 있다’는 코멘트를 줄곧 해주셨는데, 문득 나에게 필요한 말은 그게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일까? 마치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겁쟁이 사자가 나중에 용기를 얻게 된 것처럼 나에게도 이 과정이 용기를 얻는 과정인 걸까?’ 그런 생각의 끝에, ‘나는 줄곧 사자였구나! 단지 용기가 부족했을 뿐이었던거야!’ 라는 결론이 나왔다. 용기가 있든 없든 사자는 언제나 사자다. 사자에게 용기가 있다면 누구에게도 고개를 굽히지 않은 채 우아하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뚫어볼 것이다. 사자는 불편한 기색을 자주 내비치지는 않지만 정 안되겠다 싶을 때는 엄청난 포스로 사자후를 내뿜는다! 나는 사자를 내면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지지를 보내는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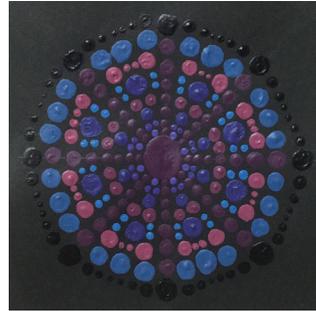
4회 차에는 GROW Model 워크숍을 했는데, 내 목표와 그것을 이뤄나가기 위한 과정들을 적는 시간이었다. 사실 달성 목표와 수행과제를 생각하는 일은 어찌 보면 흔한 과정인데, G. 커뮤니티에서 했을 때는 나도 몰랐던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친밀하고 영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하지만 지난 연애에서 나는 내가 가진 커뮤니티와의 관계에 제한을 받았고, 그 사이 그 커뮤니티는 분열이 되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그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어떤 마음인지 파악하고, 기록해서 지금 이 커뮤니티의 상황을 거시적으로 보자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달성했을 때 어떻게 축하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봤는데 내가 그들의 모습을 기록한 영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하고 싶었다. 나는 2년 전부터 독립 다큐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혼자 작업을 해왔는데, 그제야 내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사람들의 모습을 내 시각으로 담고, 그걸 당사자에게 보여주며 관계 맺고 싶었던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G. 커뮤니티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공감과 응원을 받았고, 앞으로 내 작업에서 필요한 방향성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나는 분열된 커뮤니티를 떠올리며 마인드 맵을 만들었다. 분열된 양쪽에 속한 사람들을 적고, 양쪽에 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적었다. 그림으로 만들고 보니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립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 와중에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던 건지가 쉽게

파악되었다. 그동안 이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면서 찍은 촬영본을 어떻게 편집해야할지 막막했고, 혹시라도 내가 만든 영상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그런데 정리를 하고나니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은 견히고 누구의 의견을 들을지, 어떻게 조율할지 일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아직도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나의 다큐멘터리 작업은 관계 맺기의 한 매체일 뿐이므로 급할 것 없이 내 속도에 맞춰서 일을 진행해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다.



하루, 이틀씩 걸러 그린  
만다라



넷째 주에서 다섯째 주 사이에 나는 더 많은 활동을 했다. 첫째 주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약속이 일주일 내내 G. 커뮤니티 하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에 스케줄 두 개를 소화하기도 하는 등 에너지 레벨이 점점 높아졌다. 이틀에 한번 꼴로는 만다라를 그리고, 다달이 하는 독서 모임에서는 내가 선정한 책 『몬스터멜랑콜리아』를 읽으며 지난 연애를 되돌아보았다. 또 폭파되었던 커뮤니티의 친구들과 1년 만에 만나서 그때의 이야기, 그 후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에는 나보다 더 큰 트라우마가 남은 친구들도 있어서 따로

보며 우리가 이 경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깊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1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친구들과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최근까지 몇 번을 더 만났다.

더 이상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에코는 숲 속에서 뛰어나와 나르키소스의 목을 꺾어안았다. 그러나 나르키소스는 늘 그래 왔듯이 이 요정에게서 도망치며 소리를 질렀다.

“이 손 치워! 차라리 죽지, 너 같은 것의 품에 안겨?”  
“안겨…….”

— 같은 책, 같은 쪽

이 파국은 최초의 고백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생긴 파국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에코는 충실한 사랑의 실천자, 고백의 생산자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에코의 사랑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누군가에게 열심히 맞추기만 하고 나에게 나오는 것은 펼치지 않  
4  
있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충실한 사랑의 실천자나 고백의 생산자가 되지 못한 느낌.

『몬스터멜랑콜리아』를 읽으며  
본문(흰 글씨)에 적은 메모  
(노란 글씨)

마지막 시간인 5회 차에 다시 G. 커뮤니티에 모였다. 지난 한 주가 어땠는지 이야기하면서 나는 커뮤니티가 폭파되었던 경험과, 그 친구들과 1년만에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원인제공자에 대해 내가 가진 패턴화된 트라우마를 얘기했고, 코치님은 그게 나타나면 일단 멈추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뒤 끊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해주었다. 그리고 동지가 한 명에 의해 폭파되는 경우는 자주 있어서, 그런 동지를 찾아다니는 대신에 내가 어디든 다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나를 웰컴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G. 커뮤니티가 완료되고 한 달 동안 ‘나 스스로 나를 웰컴’하는 게 무엇일지 끊임없이 생각해 보았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 의해 내 삶이 좌우되는건 싫었다. 그런 고민이 다다른 결과였을까? 나는 2주 전부터 친구들이 운영하던 갤러리 팝을 공동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 나를 고용한다’는 말을 떠올렸고, 스스로 고용하는 것과 스스로 웰컴하는 것이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전을 계속 하고 있다. 버스에서 에어컨 온도를 낮춰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부터 갤러리 팝의 BGM을 소개하는 내용을 인스타에 올리는 것 등 아주 소소한 도전부터 시작 하고있다.

자신감은 해보기 전에 갖는 게 아니라 해본 다음에 오는 것이다. 마지막 G. 커뮤니티 시간에 코치님이 해주신 말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응원을 받은 경험, 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서 나를 지키는 경험들을 쌓으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용감한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 나 자신을 웰컴하며 당당하게 내 정체성을 세상에 발현할 것이다.



다육식물인 곰발바닥. 내가 속한 독서모임의 이름이기도 하다.  
멤버별로 하나씩 나눠가져 일곰이, 발사, 바이, 삼닥이 등으로 이름을 붙였다.

#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기쁨의 산

G. community 활동을 통해서 나의 현재에 대해서 과거와 미래를 투영해서 나를 수용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난 기회를 발견하고 나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정리하여, 스스로의 해결책을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가장 큰 기쁨은 나의 일과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곱씹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도 감사한 시간이었다.

서로모여 주고받는 사랑으로  
나비는 행복해지네



## # 나를 사랑한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제일 사랑할 것이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누구든 자신을 스스로 행복하게 해야 한다. 자신의 행복을 보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자세히 본다. 나의 삶의 진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나를 멈추고 시간을 내가 지배하니 보인다. 시간 안에 갇혀 속도전 일 때는 일과 뒤엉켜 하루하루가 쏠살같이 지나가는 것이 즐겁다고만 생각했다. 경쟁적 목표적 성취감이 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인정받고 성취하고 해내고 바쁘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내 삶이 풍성하게만 느껴졌다.

작년 큰 병으로 나의 시간이 1년 정도 강제로 멈추었다. 병과 같이 놀면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공부하였다. 기력이 없고 힘들어서 체력이 어려운 상태가 되니 나의 삶의 방식과 리듬이 다시 보였다. 어쩌면 내 삶을 다시 보고 새롭게 살라고 신이 내게 주신 기회란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 내가 소진되어가는 방식으로 교환되는 행복, 더 심하게 말하면 건강과 거래되는 행복이 아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행복이 나에게서는 필요하다. 정신적으로는 매우 많이 좋았고 발전했고 성장했다. 그러나 나의 그동안의 행복은 반쪽, 몸을 굽아 먹고 얻은 무식한 행복이



핑크숲에서 꿈꾸기

었다.

아픈 동안 가족들은 더욱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회복을 위해 특별한 보살핌이 있어서 더욱 좋았다. 나의 아들 상훈은 엄마의 모습을 담은 희곡을 썼고 그 희곡은 남산아트센터에서 당선이 되었다. 그 희곡이 공연으로 상연되는 그런 멋진 일을 나에게 선물했다. 무엇보다도 기적은 아픈 동안 친구들의 보살핌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내가 이리도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였다니... 매일매일이 샘물같은 기쁨과 사랑의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졌다. 나를 아끼는 친구들의 특별한 보살핌이 매우 크게 나의 삶을 지배했다. 그래서 사실 죽는다는 생각보다 얼른 나아 친구들과 즐거운 미래를 꿈꾸기에 바빴다. 그래서 의사들과 몇몇 사람들은 크게 우려했지만, 그들의 우려를 뒤로 하고 무사히 병을 이겼으며 내게는 기적 같은 삶이 다시 주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진한 사랑 속에 부활하고 회생하는 나 자신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스스로 돌보고 보살피고 균형적으로 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사소한 나의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첫 단계, 물질적으로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나는 검소하다. 그러나 인색하지는 않다. 그러나 과거의 나는, 나에게 인색했다. 그래서 생각했다.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선물하리라.

얼마 전 딸이 월급 탄 기쁨으로 엄마에게 3가지 선물을 했다. 좋은 식당에서 밥먹기, 좋은 신발을 사주었고, 걸음걸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으며 나에게 적합한 운동하기를 추천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받고 힐링하기까지. 예전 같았으면 너무 비싸게 월급 턱 낸다고 한소리 했을 나였으나 이번만큼은 매우 기쁘게 온전히 딸의 배려를 받아들였다.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뿌듯했다. '그래, 나에게 이런 것이 맞아'라고 되새기면서.

두 번째는 운동하는 시간, 노는 시간, 쉬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기. 일은 일하는 시간 안에서만 하기, 휴가 모두 사용하기 등이다. 이전까지는 개인적인 시간을 우선 배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개인시간은 뒤로 밀리고 결국은 안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앞으로는 개인적인 시간을 잘 활용하여 균형있는 생활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푸른꽃밭에서  
새로운 방향을보다

## # 전환 - 생각과 마음

나의 좌우명은 다음과 같다.

항상 침착하고 예의바를 것 always be calm and courteous

항상 신념을 가질 것 always be determined

항상 열성적일 것 always be enthusiastic

항상 확고할 것 always be firm

항상 진실할 것 always be genuine

나는 '항상'이란 말이 참 좋았고 나의 삶 속에서, 일 속에서 항상성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그런데 워크숍 과정에서 자신의 습관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항상'이란 말에 다른 의미가 부여 되었다. '변함없는, 변치않는' 보다는 '고정화된, 딱딱한, 고집스러운'이란 의미가 더 많이 발견되었다. 아, 내 삶에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구나, 이제는 여유와 유연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어야겠다는 성찰과 더불어 일신우일신에 대한 새로운 애착이 생겼다. 나날이 변화하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자.

전환이란 '넘어섬'이다. 변화지만 그 전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생각에서도 낯은 것에서 신선한 생각으로, 열려있고 창의적인 생각으로의 전환. 마음도 뜨겁고 열정적이고 따뜻한 마음뿐 아니라 중용, 균형이 있는 마음,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으로 전환, 관습화된 습관에서 유연하고 건강한 행동으로의 전환.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전환이다. 매일 매일이 새로운 즐거움으로 가득한 날들로 가득하도록 나는 나의 삶을 넘어가고 있다.

## # 리더십 여성 - 페미니즘리더십

좋은 리더십을 말할 때 주로 파워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을 이야기한다. 나는 그동안 내 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나쁘지 않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많은 제자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시시때때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나와 보낸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슴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 자랑하고 주변사람에게 나와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을 떼떼이 말한다. 그들은 우리가 자랑이고 나도 그들이 자랑이다.

중고등을 검시로 통과하고 어렵게 유아교육과를 졸업해, 첫 취업 면접 시 우리 학교 이름을 당당히 썼던 가희, 교수가 불리할 수 있으니 이력서에서 빼자는 조언에도 그녀는 당당히 말했다. 내 삶에 있어서 <꿈틀 학교>는 너무 소중한데 뺄 수 없고 나를 만들어 준 원천이라고. 지금 생각해도 울컥한다.

동거하던 남자와 헤어지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찾아온 혜지, 5년 성매매에서 겨우 벗어나 새 삶을 사는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3년이나 폭행에 시달려온 그녀, 그녀를 괴롭히는 그 남자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선생님에게 용기를 내었다. 지금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그녀도, 선생님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얼마 전 내가 좋아하던 드라마인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라는 드라마의 음향감독인 건이가 전화를 했다. 대학로에서 촬영한다고 선생님 구경하러 오시라고, 아마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 다른 스텝이 나를 제지 하였다. 그러자 건이가 “우리 선생님이셔.” 하면서 자신이 일하는 의자를 나에게 양보하여, 감독의자에 앉아서 촬영장면을 모니터로 관람하는 영광을 가졌다.

이런 감동과 뿌듯함을 언어로 형용하기에는 내 언어가 너무 짧다. 내 인생은그렇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람을 소중하게 건강하게 키워낸 참 난 멋진 사람이다. 워크숍 시간은 나의 삶을 되돌아 보기하면서 나에게 대해 훌륭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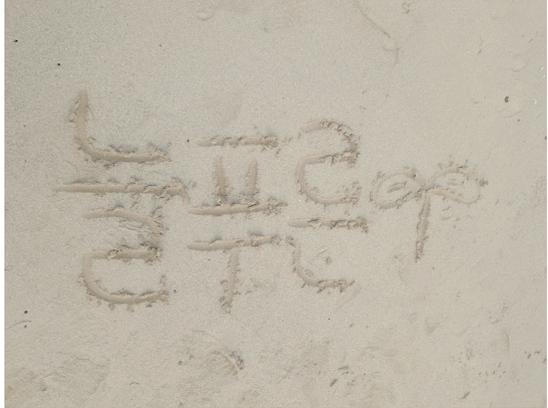
여성리더십으로 인해 코로나가 더 빠른 회복이 있었다는 항간의 말을 나는 매우 신뢰한다.

나는 페미니즘 리더십을 지향한다. 나는 페미니즘 리더십이 나처럼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리더십임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긴다. 페미니즘 리더십의 장점은 평등하게 소통하기, 나의 감정 수용하고 보살피기, 최적의 대안찾기, 내가 하고있는 일에 강점을 발휘하기, 스스로를 행복하게하기, 건강한 보살핌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하게 하기, 타인과 함께 협력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등인 것 같다. 나는 이런 리더십이 사회의 문화를 건강하게 혁명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페미니즘 리더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워크숍 내내 대영 선생님의 ‘여성들이 연대해야하고 더 많이 배우고 도전하고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여성 스스로가 가진 장점을 부각해서 나서야 한다’는 말이 참 많이 공감했다. 챙기고 보살피는 일을 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없이 조용히 희생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소리내서 해야 한다. 옛말이 생각한다. 앎탐이 울면 알을 낳는다.



“우리는 오늘도 배운다 세상을 보물섬아 사람을 희망삼아”



## #나는 진행중이야 - be coming

EQ에 대한 프로파일을 받았다. “현재 다양한 삶에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특정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보입니다. 당신 강점 중에 하나는 관계입니다. 당신은 웰빙에 대해 이해와 만족이 필요합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모든 심리검사가 그렇기는 하지만 꼭집게인 듯 하고 갑탄했다. 나는 관계에 강점이 있다는 부분이 마음에 들고 좋았다. 그렇구나, 난 이런 걸 참 잘하고 잘할 수 있고 이것으로 뭔가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다.

나는 감정을 알아차리기 전에 미리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용한 감정과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자기관리 측면에서 ‘어떻게’부터 생각하므로 항상 최적의 대안을 생각하고 장기적인 목표와 대안을 항상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즐거움’, ‘타인의 인정’, ‘결과적인 성취’ 등의 동기가 필요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보살핌과 행동 전에 ‘감정’에 대해 미리 알아차리고 감정을 음미하는 단계가 필요한 사람이다.

난 참 장점이 많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것을 잘 알아차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서 더욱 기분이 좋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셀프 칭찬이야말로 자존감 높이는 데 굉장한 비법인 듯하다. 생일날 자신에게 매년 좋은 선물을 하는 친구를 보았다.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그 태도야말로 셀프칭찬의 가장 최정점이란 생각이 들었다. 셀프칭찬으로 자존감 자신감 업하고 셀프리더십으로 유능감 효능감을 업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게 있어서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의 자원들을 점검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적어 보고,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에 나의 상태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구체적인 미래적인 나의 삶을 살펴보는 것들은 중요한 숙제고 워크숍에서 얻은 이 기회는 귀중한 기회였다.

나는 항상 진행 중이다. 그것도 아주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특히 워크숍을 통해서 나에 대한 감정과 특성을 더욱 정확히 알고 수용하게 되었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겠지.



태양을 내 품안에



아이들의 꿈과 같이 자라다

## #큰 그림을 그리다

워크숍에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나의 현실 욕구와 자원, 장애 등을 살피는 활동을 하였다. 나는 주로 내가 피곤할 때 어떻게 쉬는지, 휴가를 어떻게 즐기지, 긴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동을 어떻게 할지 등 나의 상태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발견했다. 워크숍에서의 명제는 ‘조급하게 생각지 말고 천천히 가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LIFE 근육키우기’였다. 그렇지만 지금의 나는 ‘신체적 근육키우기’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나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나에게 큰 그림의 시작은 현재 나를 잘 돌보는 것에서 시작함을 다시 인식한다.

지금 가장 원하는 건 ‘하고 싶은 여행하기’, ‘길게 잘 쉬어보기’, ‘여유롭게 거닐며 한가하게 시간보내보기’ 등이다. 내가 나를 잘 이완하고 미래를 위해 나의 정신적 육체적 강건함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큰 그림을 위한 우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교육상’과 ‘공간’이 있다. 이제는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시작의 시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도전에 용기가 생겼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나는 모든 사람은 꽃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꽃 같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가끔 꽃 같기를 바라는 간절한 내 마음이 상처받을 때가 있다. 사람 꽃이 꺾이고 짓밟히고, 향기를 잃고 시들어가는 것이 싫다. 마음 아프고 참기 힘들다. 삶을 누리기보다 견뎌내야 하는 현실이 장벽처럼 다가오는 상황이 안타깝다. 내가 아름답게 피어나듯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며 그런 교육을 꿈꾼다. 피어나라~~~~ 청소년의 꿈!

#어리석은 사람은 새로운 것만 찾으나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본다. 나는 오늘도 새로운 눈으로 하늘을 나무와 풀을, 세상을, 아이들은 본다. 만난다. 함께 자란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분투



# 첫 코칭 프로그램 G.Community 후기

다소니

## G.Community 신청

올해 3월 2년 동안 일했던 조교 일을 그만두었다. 계약 연장 시기가 다가올수록 주변에서 해 주는 말들과 내 상황을 고려하면서 꽤 오랜시간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연장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 맞는, 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퇴사를 결심하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할지 즐거운 마음으로 고민했다. 다른 분야로의 이직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육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예정되었던 교육들은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다행히도 5월에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코로나 19로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늦은 시작이었지만, 관심있었던 분야를 배울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교육을 들으러 갔다. 처음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야를 배우는데 보람을 느꼈지만 교육을 들을수록 위축이 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는게 없는 내 모습에 자신감이 사라졌다. 한 번 위축이 되기 시작하니 교육을 계속 들어야되는지도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퇴사 후 첫 활동이었던 만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탈탈한 언니들'을 알게되었다.

# 탈탈한 언니들

2020. 06. 03 부터  
2020. 07. 02 까지

시간 저녁 7시-9시

장소 가산디지털단지 더스카야밸리 1차 413호

기타 참가비X, 준비물X, 저녁 제공, 무료 워크숍

모집 선착순 10인 모집

## 1 탈탈한 언니들 4050 언니들의 '전환' 이야기

40대, 50대 언니들은 어떻게 삶의 전환을 하며 살고 있을까? 언니들의 지열한 헌터를 통해 우리 미래의 '전환'을 상상해봅시다.

06.03	<b>노세노세 접어서 노세 - 노니는령 조예영</b> #노세노세 #노세노세 #노세노세 #노세노세 #노세노세 #노세노세 #노세노세 #노세노세 #노세노세 #노세노세	06.17	<b>말썽한 고속도로를 두고, 뭘 하고 번지점프를? - 피터팬 김대영</b> #말썽한고속도로 #말썽한고속도로 #말썽한고속도로 #말썽한고속도로 #말썽한고속도로 #말썽한고속도로 #말썽한고속도로 #말썽한고속도로 #말썽한고속도로 #말썽한고속도로
06.10	<b>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서커스 - 복새민실 김주영</b> #멀리서보면희극 #멀리서보면희극 #멀리서보면희극 #멀리서보면희극 #멀리서보면희극 #멀리서보면희극 #멀리서보면희극 #멀리서보면희극 #멀리서보면희극 #멀리서보면희극	06.24	<b>생존과 공존의 경계에서: 40대 여성 문화기획자의 삶은 로드 무비를 달았다 - 프리랜서 문화기획 - 연구 풀리</b> #생존과공존의경계에서 #생존과공존의경계에서 #생존과공존의경계에서 #생존과공존의경계에서 #생존과공존의경계에서 #생존과공존의경계에서 #생존과공존의경계에서 #생존과공존의경계에서 #생존과공존의경계에서 #생존과공존의경계에서

\* 프로그램 1 : 개별 프로그램 참석 가능

## 2 G. Community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혁적 코칭 프로그램

삶의 전환을 대비하여 나를 확인하고 설계하는 여성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 변혁적 코칭 전문가 김대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06.04	<b>Balance Wheel 워크숍 : 삶을 구성하는 8가지 요소</b>	06.18	<b>Boundary 설정 워크숍 : 일과나의 감정</b>
06.11	<b>Peak Moment 워크숍 : 업적 분석</b>	06.25	<b>GROW Model 워크숍 : 목표와 현실</b>
		07.02	<b>Vision 워크숍 : 커리어와 삶의 조화</b>

\* 프로그램 2 : 전 과정 참석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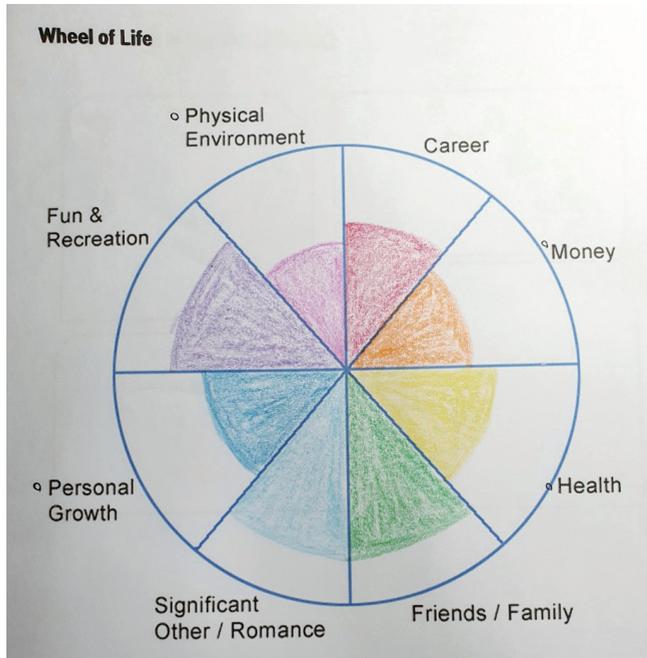
QR코드를 참여하세요!  
문의처 : WLB연구소 (여성탈출상담연구소) | 주최 : WLB연구소 | 후원 : SEOLU U  
by ahh@wlb-lab.org / 010\_5443\_8402 | Work Life Balance 상담연구원

탈탈한 언니들은 무중력시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되었다. 특강이나 커뮤니티프로그램들이 많이 올라와서 주기적으로 들어가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있는데 탈탈한 언니들도 보자마자 신청했다. 그 중에서도 G.Community에 대한 기대가 컸다. G.Community에 대한 부제인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혁적 코칭 프로그램'이 와닿았다. 지금 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주제이기도 했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코칭'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다.

## 1회차 Balance Wheel 워크숍

처음 G.Community에 참가하러 가면서 첫 날이니 어색하게 보낼 시간들이 걱정됐는데, 김대영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금방 사라졌다. 가벼운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게 좋았다. 1회차는 T-코칭과 선생님에 대한 소개와 함께 G.Community를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자기소개를 했다.

1회차 모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Wheel of Life를 그려보는 시간이었다. Wheel of Life는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0부터 10까지 내 상태를 수치화하여 도표화시키는 작업이었다. 현재 내상태를 분야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좋았다. 보통 혼자서 생각하다보면 이것저것 섞어서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나눠서 수치화하니 훨씬 편했다. 각자 자신의 원을 채운 후에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혼자서 그럴 때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 먼저 처음 내 원을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 정확한 수치를 적진 않았지만 보통 4에서 8 사이의 수치들이었다. 하지만 얘기를 나눠보니 0이



나 1의 수치로 표현하신 분도 있었다. 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많이 부족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분야별로 보면 나는 돈과 자기개발, 주변상황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의외로 경력에 대해서 평균적인 수치를 줘서 '사회경험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점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깨달을 수 있었다. 같이 G.Community에 참가했던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공통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돈과 건강, 자기개발, 주변상황이 뿔뿔했다. 이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어떤 전략과 액션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1회차가 마무리되었다.

## 2회차 - Peak Moment 워크숍

간단하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모임이 시작되었다. 2회차에서는 ‘고등래퍼3’ 프로그램의 우승자인 ‘이영지’의 영상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했다. 영상을 보고 각자 느꼈던 생각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배우고 싶은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같은 영상을 봤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영상을 보면서 과하다고 생각되는 것에도 도전할 수 있는 실행력을 배우고 싶었다. 생각만 하다 끝나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무모할 정도의 실행력에 눈이 갔다. 그리고 2회차의 핵심인 Peak Moment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었다. 첫 모임에서 다음 시간까지 서로의 Peak Moment에 대해서 생각해오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대학교 3학년 때가 떠올랐다. Peak Moment라고 생각하지만 많았을 뿐 항상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왔다. 대학교 3학년 때가 가장 즐겁고 에너지가 넘쳤던 시기였다고. 그 이후로 나아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때만큼은 아니라고 느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니 혼자 생각했을 때

“저는 좀 과하게 도전합니다.”



Peak Moment Workshop 그룹 토크: 파워 토크로 나를 발견하다



보다 더 정리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말로 하는 건 달랐다. 개인적인 얘기들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놀랐고, 얘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피드백 해주셔서 감사했다.

2회차 모임의 피드백으로 ‘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도 많이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했던 생각만 반복적으로 했을 뿐 발전되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조금씩이라도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

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다. 생각보다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가족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려고 했다. 이런 생각은 3회차 모임 주제와도 연결된 내용이었다.



### 3회차 - 바운더리 설정 워크숍

3회차 모임에서도 영상을 봤다. 위스퍼 광고로 ‘여성’에 관한 주제였다. 여자답게 행동한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보여준 광고였다. 그만큼 그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3회차는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평소에도 인간관계가 협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분야였다.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는 사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 정보와 경험을 제공해 주는 사람, 결정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 기운을 꺾는 사람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사람을 적는 시간이었다. 꽤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쓸 사람이 너무 없어서 놀랐다. 옆에 계신 분은 목록을 채우고도 옆에 더 적는 것을 보면서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인간관계를 보며 잘못된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

지만 인간관계가 좋다고 해서 나쁜 것만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한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2회차 모임 때 생각했던 것처럼 네트워크 목록을 작성해보니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는 사람 같이 긍정적인 영향도 그랬지만 결정에 혼란을 주거나 기운을 꺾는 사람에 대해 적을 때 가족이나 가깝게 느끼는 친구들을 적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주변에서 하는 말에도 크게 휘둘렸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지금 하고 있는 취직 준비는 '나'를 위주로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다.

**UEQ Profile**

성함 : 김대영  
날짜 : 2023. 05. 20

**Life Success**

현재

당신은 삶의 많은 영역에서 개선하고 싶어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웰빙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웰빙에 대해 좀 더 많은 이해와 만족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껏 스스로 만들어 온 성과들이 균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g. 개인적 & 업무적)

**네트워크를 살핍시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

늘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는 사람은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은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4회차 - GROW Model 워크숍

4회차 워크숍에서는 김대영 선생님께 링크를 받아서 제출했던 진단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EQ에 대한 내용이었다. 완벽히 다 맞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 내상태를 진단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같은 진단지를 제출한 분들과도 얘기를 나누면서 비슷한 부분과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4회차 모임의 핵심은 GROW Workshop이었다. 4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분야마다 4개씩의 질문이 있었다.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질문에 답을 적는 시간이었다. GROW Workshop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 정리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앞서

모임에서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바탕으로 직접 실행까지 계획할 수 있었다. 모임에서 작성할때는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질문들을 적어두고 끝난 후에 혼자서 다시 적어보았다.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적어서 종종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았다. 특히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상황 탐색 많이 했는데 상황이 영향을 주는 부분 외에도 '나'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디서 시작해야할지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5회차를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4회차가 나에게서 마지막같은 시간이었다. GROW Workshop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G.Community에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컸다.

## GROW Workshop

- 성공을 새생하게 꿈꾼다
- Life Skills!  
매일 아침을 내 목소리로 연다!



My Success	
<b>Goal</b> 목표	
<b>Reality</b> 현실 (느낌이 중요)	
<b>Options</b>	
<b>Way Forward</b>	

My Success@Competence

## G.Community 참여 후기

아쉽게도 5회차 모임에는 참석을 못했다. 마지막까지 참석해서 같이 한 달동안 G.Community로 활동했던 분들과도 잘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그래도 한달 동안 4번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오랜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코칭을 경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같이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과의 대화도 도움이 되었지만 김대영 선생님께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서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 또 EQ테스트를 비롯해서 모임 내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해주신 것도 좋았다.

G.Community 와는 별개로 코칭에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을 때 흔쾌히 Discovery Session도 진행해주셨다. Discovery Session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답답한 지금에서 무한 긍정을 해주는 유일한 모임

delight

2019년의 야속함이 가시기도 전에 2020년을 맞이하여,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도 생활도 꾸준한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시작점을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들만 떠오르고 막상 실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로 여러 강연들과 수업들이 연달아 취소되고 있어서 새로운 배움을 포기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 아시는 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강의를 해달라는데, 나의 무엇에 대한 이야기 하면 좋을까"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어디서 강의를 하냐고 물어봤고, 마침 작년에 잠시 참여했었던 <탈탈한 언니들> 강의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강의 외에 코칭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설되었더라구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탈탈한 언니들> 프로그램과 새롭게 개설된 <G. Community>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고백컨대 코칭이라는 낯선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코칭 선생님과 첫 만남과 첫 코칭 워크숍은 그야말로 불편한 가시방식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처음 본 사람들, 그리고 처음보는 코칭 강사님, 자꾸 내 이야기길 해보라는 워크숍. 에너지도 떨어지고 사람에게 지치기도 했던 제게 이 세가지는 사실 다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후에 더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진 채 두번째 워크숍은 급체로 불참하고, 간신히 세번째 워크숍부터는 성실하게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에 제가 얼마나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이었으면 그랬을까 싶네요.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지던 코칭 참여자들은 막상 두 번째 만나보니 덜 낯설어졌고, 분위기도 금새 익숙해졌습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워크숍 회차에서는 마지막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커졌고요.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과 비교해보면 놀라운 일이지요.

<G. community> 코칭 워크숍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 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해 주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느낌, 감정,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주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근래에 만나지 못한 너무 소중한 고마운 존재와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코칭을 시작한다면, 당연히 저는 참여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추천하고 싶네요.

삶에 찌들어서 비판에 시달라고, 아픈 마음을 오롯이 안아주는 자리가 필요하시다면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잠시 멈추고 나를 재발견했던 시간

Monica

코칭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모임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무작정 신청했던 것이 시작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가지로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이 그룹 안에서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좀 더 편하게 내려놓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히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안정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나 말고도 다양한 상황의 30-40대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찾고자 여전히 힘들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에 1회, 한달에 10번도 채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 힘쓰고 내 문제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들어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나의 막연한 비전과 스스로의 강점을 돌아보는 대화를 통해 내 강점을 이용해 어떻게 사람들을 연결하고 비전이라는 것을 가져 볼지 멈춰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잡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 쉽지 않지만, 몇 년 안에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40, 50, 60대가 되어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야 할 지 지금부터 그리고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살다 보면 또 잊을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중간 점검과 같은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야 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짧은 일정 동안 알게 되었던 그룹 멤버들과 김대영 선생님, 모두 어디서든 각자의 자리에서 그때 그 에너지를 잃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를 바라 봅니다.

# 그때 그곳이 아니었다면

만두부인

## 1.

지치던 하루였다. 코로나로 아이들과 집안의 물건들과 붙어 있던 나날이었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맡기고 저녁시간에 외출이라니, 나에게 일년에 하루 정도 있을까 말까 한 날. 그것도 집에서 한시간이 걸리는 구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었다.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혼자 지하철을 탄 것은 정말 오랫동안이다. 퇴근시간대의 지하철은 몹시 붐볐다. 옆 사람의 핸드폰 액정이 자연스럽게 보였다. 무언가 배우려고 저녁에 그것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간 건 처음이다. 일생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G.커뮤니티. 나를 찾는 코칭 워크샵 중 첫날. 7명 중 5명이 싱글 언니들이었다. 원래 주제는 40-50대 언니의 재출발이었던 것 같은데...젊은 언니들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 목소리가 너무 좋단다. 팟캐스팅을 하란다. 젊은 언니야들의 칭찬을 들으니 어깨가 뽐뽐.



## 2.

커뮤니티에 가는 두번째 날은 집에서 일찍 출발해서 지하철 노선을 바꿔 보았다. 그러나 갈 아타는 지하철에서 너무 놀랐다. 여기가 어느 역이길래? 하고 보니 2호선 신도림역이었다. 험란했던 여정을 뚫고 도착한 G.커뮤니티.

고등래퍼3의 우승자 이영지님의 동영상을 같이 보았다. 엄뿔. 그녀 동영상을 페이스북에서 추천받고 찾아봤는데, 이것은 데스티니?! 김영지님의 무모함. 말리는 주변의 사람들. 내안의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 엄청났다. 그녀가 계속 지금의 용기와 실천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본 소설2권과 그녀의 동영상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용기, 저지름. 아...용기야 어딴니. 용기야?

## 3.

-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좋아요

어느 참가자가 이야기한 소감이 마음에 꽂혔다. 우리는 각자의 도전과 겪었던 성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되는 사람과 짐이 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구분해 보았다.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생활 속의 작은 변화들도 털어 놓았다. 김대영 코칭 선생님은 각자의 이야기 하나 하나를 경청하시고 응대해 주셨다. 박수를 치며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심각한 얼굴로 토닥토닥 위로를 전해 주셨다. 정말 '체중을 실어' 공감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는 바깥에 전하지 않는다'는 그라운드 룰이 있어서인지 모두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참 좋았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져서 좋았다.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걸 잘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좋았다.

질문과 이야기의 힘일까, 상반기 갑작스런 환경에 혼란스럽고, 멍하던 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힘이 나는 것 같았다.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교환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받아들여지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 4.

그동안 썼던 일기를 모아서 작은 책 쓰기를 시작했다. 독립출판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나도 원고를 한번 완성해보리라 다짐했다. 매주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기 시작했다. ‘에이, 너는 끝마무리를 잘 못하잖아.’라는 내 안의 목소리를 살포시 접었다. ‘부족하고, 완성을 못하더라도..글 쓰는 과정이 행복하면 되었다’고 생각했다. 혹시 완성을 못하더라도 나를 그냥 받아주기로 했다.

코칭 모임의 에너지를 받아서 집에 가는 길, 지하철에서 메모를 끄적이며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혼자인 시간이 좋았다.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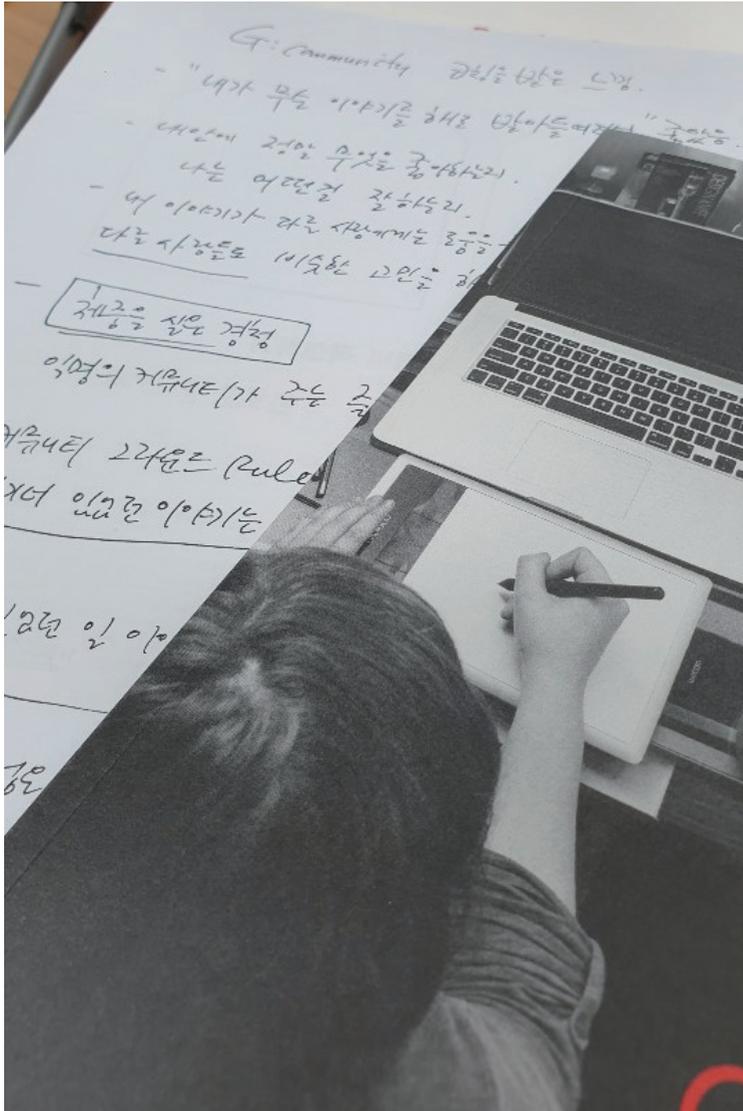
그때 그 코칭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땠을까. 아마도 육아와 집안일에 지쳐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지 않을까. (지금도 아직 많은 시간은 그렇게 보내지만..)

누구나 코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나 여성이라면 더욱. 나같이 엄마가 되어 격변의 시기를 겪는 여성이라면 더더욱. 서로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피어(peer) 코칭 모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과 이야기의 경청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놀랍다. 나 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다른 분들도 그 작은 파장을 경험했으리라 믿는다. 그동안 커뮤니티를 이끌어주셨던 김대영 코칭 선생님께

고사를 전하고 싶다.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셨던 일생활연구소와 서울시에도 고사를 전한다. 벌써 코칭 받을 때의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다시 코칭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다시 꼭 신청하고 싶다.



Thank you, G.Community!

## 탈탈한 언니들 4050

---

발행일 · 2020.09.30

발행처 · 일생활균형연구소

기획 및 진행 · 김영주, 안선영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1길 19, 401호

E-mail · hello@wlb-lab.org

Web · wlb-lab.org

편집디자인 · 이해원

표지디자인 · 이해원

**I · SEÒUL · U**

2020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